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보고서

A Report on Basic Statistical Analysis of Financial Manpower in 2010

연구책임자 : 이남철

공동연구자 : 이상돈 홍광표 정정훈
이미영 오계택

머 리 말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인적자원의 수월성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인력의 고용 및 관리, 인적자원의 개발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선진화·세계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현황과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조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왔고 2010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인력의 구조 변화추이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금융계·학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10년 5월에 실시된 기초통계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고용형태, 근무기간, 직무연수, 자격증, 학력, 전공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내용은 경영지원, 리스크관리, 마케팅, 법규준수, 보험, 세일즈, 연금, 자금조달,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 10개 직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석의 해석에는 41개 세부 직무별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결과가 정책당국의 금융중심지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정책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금

용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으로 2010년 진행되었으며, 이남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이상돈 박사, 홍광표 전문연구원, 정정훈 연구원, 이미영 교수, 오계택 교수 등이 공동연구진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지혜 위촉연구원, 박선영 위촉연구원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또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금융기관 인사담당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I. 추진배경	1
II. 조사 및 분석	2
1. 조사	2
가. 조사대상	2
1) 국내 금융기관 현황	2
2) 조사현황	3
나. 조사방법	4
2. 분석	8
가. 개요	8
1) 금융인력 고용	8
2) 금융인력 관리	10
3) 금융인력 교육	12
나. 세부 분석결과	14
1) 금융인력 고용	14
(1) 고용형태	14
(2) 여성 고용	21
(3) 외국인 고용	36
2) 금융인력 관리	39
(1) 직무	39

(2) 급여수준	48
(3) 연령	52
(4) 근무기간(총/현 직무)	58
3) 금융인력 교육	67
(1) 학 력	67
(2) 전공(대학/대학원)	72
(3) 영어능력	80
(4) 자격증	84
(5) 직무연수	87

표 목차

<표 I -1>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조사현황	3
<표 I -2> 조사항목	4
<표 I -3> 조사직무 분류	5
<표 I -4> 자격증 분류	6
<표 I -5>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7
<표 II-1> 업권·국내외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15
<표 II-2> 업권·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17
<표 II-3> 직무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18
<표 II-4> 직무·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20
<표 II-5> 업권·국내외별 여성 비중	22
<표 II-6> 여성의 업권·국내외별 고용 분포	23
<표 II-7> 직무·고용형태별 여성 비중	25
<표 II-8> 직무별 대졸 이상 여성 비중	28
<표 II-9> 연령별 여성 비중	29
<표 II-10> 연령·직무별 여성 비중	30
<표 II-11> 여성의 연령별 고용 분포	30
<표 II-12> 여성의 연령·직무별 분포	31
<표 II-13> 여성의 근무기간별 고용 분포	32
<표 II-14> 업종·국내외별 5년 이상 근무 여성 비율	33
<표 II-15> 성별 학력 분포	34
<표 II-16> 여성의 대학 전공별 분포	34
<표 II-17> 여성의 금융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35

<표 II-18> 업종별 외국인 비중	36
<표 II-19> 외국인의 업권별 고용 분포	37
<표 II-20> 외국인의 직무별 고용 분포	38
<표 II-21> 업권·국내외별 직무 비중	41
<표 II-22> 업종·성별 직무 비중	43
<표 II-23> 직무별 연령·성별 분포	44
<표 II-24> 학력·성별 직무 비중	46
<표 II-25> 직무별 대졸전공 분포	46
<표 II-26>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보유 비율	47
<표 II-27> 직무별 급여수준 비중	51
<표 II-28> 업종·국내외별 연령 비중	54
<표 II-29> 업종·성별 연령 비중	56
<표 II-30> 직무별 연령 비중	57
<표 II-31> 업종·국내외별 총 근무기간 비중	60
<표 II-32> 업종·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62
<표 II-33> 직무별 총 근무기간 비중	62
<표 II-34> 업종·국내외별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기간 비중	65
<표 II-35> 직무·성별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기간 비중	66
<표 II-36> 업종·국내외별 학력 비중	67
<표 II-37> 업종·성별 학력 비중	69
<표 II-38> 직무·성별 학력 비중	71
<표 II-39> 업종·국내외별 대졸자 전공 비중	73
<표 II-40> 업종·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74
<표 II-41> 업종·국내외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75
<표 II-42> 업종·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76
<표 II-43> 직무·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78
<표 II-44> 직무·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79

<표 II-45> 업종·국내외별 영어능력 비중	81
<표 II-46> 직무·성별 영어능력 비중	83
<표 II-47> 업종·국내외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	85
<표 II-48>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중	86
<표 II-49> 업종·국내외별 직무연수 비중	87
<표 II-50> 업종·국내외별 연수 유형별 비중	88
<표 II-51> 업종·성별 직무연수 비중	89

요 약

I. 추진배경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인력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또한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확정함.
- 금융인력 양성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공급기관(대학·연수기관)과 수요기관(금융회사)의 신속·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도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II. 조사 및 분석

1.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7개 업권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력구조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에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총 1,185개 금융회사가 참여함.

■ 조사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직무, 근무기간, 직무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됨.

○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10개 그룹으로 대분류한 후, 이를 다시 41개 직무로 세분류하였음.

2. 분석

1) 금융인력고용

(1) 고용형태

■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금융인력 중 조사대상자의 43.6%가 은행에, 보험은 23.5%, 증권/선물이 18.0%, 여신전문이 6.2%, 신탁이 3.7%, 상호저축이 3.4% 그리고 자산운용이 1.6%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정규직 비중은 87.8%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6.7%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산업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 국내외별로는 국내계(87.8%)가 외국계(87.0%)보다 정규직 비중이 다소 높으며, 업종별로는 보험(94.1%), 신탁(89.8%)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여신전문(76.9%), 증권/선물(79.9%)은 낮게 나타남.

○ 성별 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성은 90.3%, 여성은 84.6%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남녀별 정규직 비중(각각 72.9%, 58.2%)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 구분 없이 금융산업의 고용안정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양호함을 시사함.

- 직무별로는 투자은행업의 정규직 비중(76.3%)이 낮게 나타난 반면 준법감시업의 정규직 비중(93.5%)은 가장 높게 나타남.

(2) 여성 고용

■ 금융업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고용비중이 과반에 못 미치는 44.1%를 차지하나, 외국계의 경우 여성비중은 53.3%에 달함.

- 업종별 여성 고용비중은 보험(52.0%)과 여신전문(47.2%)에서 가장 높았고, 자산운용(30.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여성의 직무별 비중을 보면, 영업 부문에서 가장 높게, 연금 및 준법감시 직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 주로 여성인력을 비정규직(78.4%)으로 고용하는 금융계 관영이 반영됨.
- 투자은행 직무(13.4%)는 비교적 고난이도의 업무 비중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학력,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 등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위임.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51.8%)이 남성(77.2%)보다 크게 낮고, 대학 전공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직무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 전공자 비중(여 60.8%, 남 38.2%)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규직 비중이 높은 외국계의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여성 48.4%, 남성 58.4%)이 남녀 모두 국내계(여성 51.3%, 남성 71.6%)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외국계의 고용이 국내계보다 유연함을 시사함.

(3) 외국인 고용

■ 조사대상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외국인 비중은 0.6%에 불과하여 국제적인 금융인력의 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증권·선물(1.2%)과 자산운용(2.7%)에서 외국인 고용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무려 16.1%로 매우 높음.

2) 금융인력 관리

(1) 직무

■ 전업종에 걸쳐 가장 높은 인력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48.7%)이며 국내계는 영업(50.3%)의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계는 경영지원(47.9%)의 비중이 높게 조사됨.

■ 자산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성별 구분 없이 영업과 경영지원 부문이 높게 조사됨.

○ 은행과 상호저축에서 여성의 영업 직무 비중은 각각 74.1%, 67.9%로 조사됨.

○ 자산운용 업종에서는 남성(50.7%)은 자산운용에 여성은 경영지원(36.2%)에 인력이 집중됨.

- 투자은행 직무 부문에서는 경영·경제 등 상경계 전공자(42.1%)가 집중된 반면, 보험 직무에는 기타 전공자의 비중(57.1%)이 높음.
- 금융관련자격 중 국제통용자격 소지자 비율은 자산관리 및 투자은행 직무에 높게 나타나 이들 종사자의 전문성이 높음을 시사함.

(2) 급여수준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50.8%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계보다는 국내계의 급여수준이 높음.
- 직무별로는 투자은행 직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자산운용, 준법감시이며, 보험과 자금조달 부문이 낮게 조사됨.
- 평균 근무기간이 짧은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직무 종사자들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직무특성이 고용 인력의 업무능력 수준과 임금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3) 연령

-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인력구조는 20대와 50대의 비중이 낮은 향아리형임.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연령별 인력 비중은 30대(41.4%), 40대(28.3%), 20대(22.7%), 50대 이상(7.6%)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외국계는 국내계보다 30대 비중이 높고, 40대 및 50대 비중은 낮으며 20대는 비슷한 형태의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어 장년층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계가 우위임을 의미함.

■ 업종별로 40대 이상 고용비중을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 각각 43.1%, 35.0%로 가장 높고, 여신전문(19.4%)이 가장 낮게 나타남.

(4) 근무기간(총/현 직무)

■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직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46.6%)이 가장 높고, 이어 5년 미만(37.7%), 5~10년(15.6%) 순으로, 허리가 잘록한 표주박 형태임.

- 허리부분인 5~10년 경력자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 축소와 함께 기존 고경력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력구조조정의 결과로 추정됨.

■ 10년 이상을 장기 근속한 인력의 비중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24.4%) 보다는 남성(47.8%)이, 업종별로는 은행(54.8%)과 보험(53.9%)이 높음.

- 직무별로는 법규준수(54.1%), 마케팅(53.6%) 부문이 높게 나타남.

3) 금융인력 교육

(1) 학력

■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58.6%)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2.1%), 전문대졸(11.9%), 대학원졸(7.4%) 순임.

■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을 보면, 국내외별로는 국내계(65.3%)보다는 외국계(77.7%)가, 업종별로는 자산운용(92.7%)과 증권·선물(80.7%)이, 성별로는 여성(51.8%)보다는 남성(77.2%)이 높게 조사됨.

- 직무별로는 투자은행 직무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96.1%)이 가장 높으며, 이어 자산관리(92.7%), 연금(89.4%), 법규준수(81.9%)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금융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강화됨.

(2) 전공(대학/대학원)

■ 전체 금융직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30.4%, 경제 12.6%, 전산 5.7%, 법학 4.9%, 기타 46.4%로 나타남.

■ 대졸자의 전공별 비중에서 경영, 경제, 회계 등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 비중을 보면, 업종별로는 보험 및 신탁의 기타 전공자 비중(각각 52.2%, 49.4%)이 증권·선물과 자산운용(각각 38.6%, 34.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직원채용에 있어 공학, 자연계 등 다양한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 구성은 경영·경제 42.7%, 기타 35.5%, MBA 16.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영어능력

■ 금융기관 직원들의 영어능력은 상위수준(TOEIC 875 이상)이 18.4%인 반면 하위수준은 58.7%를 차지함.

- 외국계는 영어능력이 상위인 비중이 37.0%에 달하여 국내계(16.5%)와는 큰 차이를 보임.

- 업종별로는 자산운용의 영어능력 상위자 비중이 64.7%로 증권/선물(32.0%), 보험(21.6%) 및 은행(15.1%)보다는 월등히 높게 조사됨.
- 직무별로 영어능력 상위자 비중을 보면, 투자은행 직무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직무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4) 자격증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94.18%이며, 이중 국제통용자격 소지자 비율은 2.04%에 불과함.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제통용자격증 소지자 비율(3.44%)은 국내계(1.95%)보다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금융관련 자격증을 직무별로 보면 연금, 영업, 자산관리 직무에서 소지비율이 높게 조사됨.
- 특히 국제통용자격증의 경우 위험관리, 자산관리, 투자은행 등의 직무에서 소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5) 직무연수

-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에 직무연수를 거의 활용하지 않음.
- 이는 업무현장을 떠나서는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소속기관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자기계발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취업 인력은 물론 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금융기관 종사자 중 3주 이상의 해외연수, 3개월 이상의 외부(국내), 혹은 사내 연수를 받은 비율은 18.5%임.
- 우리나라 전체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I. 추진배경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된 바 있음.

- 금융인력 양성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제시, 공급기관(대학·연수기관)과 수요기관(금융회사)의 신속·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0년 10월 13일 ~ 12월 3일 간 7개 업권* 1,185개 금융회사로부터 인력구조 현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였음.
 - *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Ⅱ. 조사 및 분석

1. 조사

가. 조사대상

1) 국내 금융기관 현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금융업권 내 주요 업종 중심으로 2010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10년 5월말 기준 은행, 증권회사, 생·손보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여신금융전문회사), 신탁(신탁협동조합)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7개 주요 업종의 금융회사 수는 1,42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중 은행 30개, 보험 22개, 증권/선물 42개, 자산운용 47개, 여신전문 31개 등 총 1,185개 금융회사가 이번 금융인력 채용현황 조사에 참여하였음.
- 업종별로는 은행의 고용인원이 10.3만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보험(5.6만명, 23.5%), 증권·선물(4.2만명, 18.0%), 여신전문(1.5천명, 6.2%) 순으로 나타남.
- 국내외별로는 국내계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22.2만명으로 절대 다수(93.9%)이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는 1.4만명(6.1%)에 불과함.

2) 조사현황

□ 조사일정

- 10/06(수) : 『2010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협조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10/06(금) ~ 10/08(금) : 인사 담당자 파악
- 10/11(월) ~ 10/12(화) : 조사표 및 통계작성 요령 배포
- 10/13(수) ~ 11/19(금) : 1차 조사 완료
- 11/22(월) ~ 12/03(금) : 조사 독려 및 2차 조사 마감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총 1,429개의 금융기관 중 1,185개의 기관이 이번 조사에 참여 82.9%의 참여율을 기록함.

- 2009년 통계조사에 비해 136개 금융기관이 증가하였음.

<표 1-1>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조사현황

(단위 : 개, 명, %)

	영업기관수			고용인원			조사기관수			조사기관인원		
	계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은행	54	17	37	103,144	100,781	2,363	30	15	15	65,436 (63.4)	64,249 (63.8)	1,187 (50.2)
보험	53	27	26	55,527	46,718	8,809	22	12	10	35,177 (63.4)	29,462 (63.1)	5,715 (64.9)
증권/선물	78	60	18	42,470	41,289	1,181	42	37	5	18,969 (44.7)	18,743 (45.4)	226 (19.1)
자산운용	71	50	21	3,834	3,049	785	47	35	12	2,015 (25.6)	1,615 (53.0)	400 (51.0)
상호저축	109	108	1	8,040	7,876	164	97	97	-	7,081 (89.9)	7,081 (89.9)	-
여신전문	62	49	13	14,635	13,552	1,083	31	24	7	11,899 (81.3)	11,586 (85.5)	313 (28.9)
신협	1,002	1,002	-	8,737	8,737	-	916	916	-	8,651 (99.0)	8,651 (99.0)	-
총 계	1,429	1,313	116	236,387	222,002	14,385	1,185	1,136	49	149,228 (63.1)	141,387 (63.7)	7,841 (54.5)

주 : 영업기관수 및 고용인원은 금감원 집계기준, ()의 수치는 조사참여 인력비율

나. 조사방법

- 금번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함.
-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표 1-2> 조사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성별	남/여
직무	경영지원/자금조달/법규준수/리스크관리/마케팅/세일즈/ 투자은행/자산관리/보험/연금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총근무기간	5년 미만/5~10년 미만/10~15년 미만/15~20년 미만/20년이상
현 직무 근무기간	3년 미만/3년 이상
직무연수	사내연수/외부연수/해외연수
영어능력	상/중/하
자격증	변호사/회계사/국가기타/법정/공인/비공인/CPA/AICPA/CFA/FRM/국제기타
급여	2,500만원 미만/2,500~5,000만원 미만/5,000~7,500만원 미만/ 7,500~1억원미만/1억원 이상
연령	20대/30대/40대/50대 이상
국적	내국인/외국인
제2외국어	중국어/일본어/기타
학력	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전공	경영·회계/경제/전산/법학/기타
대학원 전공	MBA/경영·경제/전산/기타
이직인원	2010년 기준 이직인원

- 상기 16개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41개의 세분류된 직무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분석의 편의상 통계분석은 10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사용하고 분석의 해석에는 세부 직무별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함.

<표 1-3> 조사직무 분류

	세부직무	직무개요
경영지원	일반경영지원	기획, 인사, 교육, 비서, 홍보, 서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조사연구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정보기기관리 등 관련업무
	재무관리	회계, 결산, 세무, 이익관리 등
	법무/감사	법무, 감사 등 관련업무
	사후관리	Back Office 업무(결제, 회계, 기표, 대사, 원리금회수 등), 여수신 및 카드 사후관리, 부실채권관리 및 정리 등 관련업무
자금조달	창구영업의 자금조달	원화, 외화자금조달기획, 조달, 조달자금관리 등 업무
법규준수	준법감시	법규준수와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직내 감시 및 예방을 수행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과 관련된 거래를 예방, 포착하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ALM)	장부상 자산, 부채를 기반으로 유동성 및 향후 현금흐름 예측, 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
	시장위험관리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장내 위험요소들을 측정, 관리
	신용위험관리	기업 및 개인고객의 신용판단 정책 수립, 신용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및 고객신용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운영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 통제
마케팅	상품개발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영업기획·지원	상품 마케팅, 영업활동 지원, 채널 관리를 수행
세일즈	개인일반영업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또는 펀드/보험상품, 신탁상품 및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PB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
	기업영업	기업여신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기업여신심사	개별기업의 여신을 분석,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
	유가증권중개	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 파생상품 중개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투자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을 수행
	자산유동화	비유동성자산을 유가증권/채무증서로 전환, 자산유동화과정의 참여 및 자문 수행
	Principal Investment	자사가 보유한 고유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및 M&A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
	국제투융자	고객의 해외사업관련 금융자문, 차입추선 및 참여와 해외사업관련 여신 등을 수행
	유가증권인수	유가증권(주식/채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을 수행
	M&A, IPO 등 자문	M&A, 구조조정, IPO 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Private Equity	소수의 투자자대상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
자산관리	펀드관리	펀드 거래 및 수익평가, 포트폴리오관리 등의 펀드운용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
	주식운용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채권운용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운용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화자금운용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신탁관리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기타자산투자(부동산등)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평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연금	연금계획관리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및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퇴직연금자문	퇴직연금 관련 총체적 자문을 수행

- 상기 16개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등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세부자격증의 분류는 아래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표 1-4> 자격증 분류

구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 업종간 또는 국내계 및 외국계 기관간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이(samp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를 거쳐 분석을 시행함.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좌우되는 편이(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및 국내외 기관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업권별로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표 1-5>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국내	외국
은행	1.5686	1.9907
보험	1.5857	1.5414
증권/선물	2.2029	5.2257
자산운용	1.8879	1.9625
상호저축	1.1123	-
여신전문	1.1697	3.4601
신협	1.0099	-

주 : 가중치는 [업종별 × 국내외 기관별 고용인원 비율] 의 방법으로 산출

- 분석결과는 각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업종간 직접 비교는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자산운용 분야 인력의 자격증 보유 비중이 높은 것은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분야 인력이 타 업권에 비해 전문성이 높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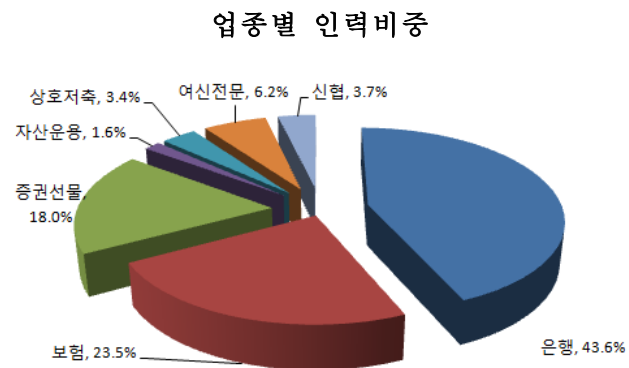
2. 분석

가. 개요

1) 금융인력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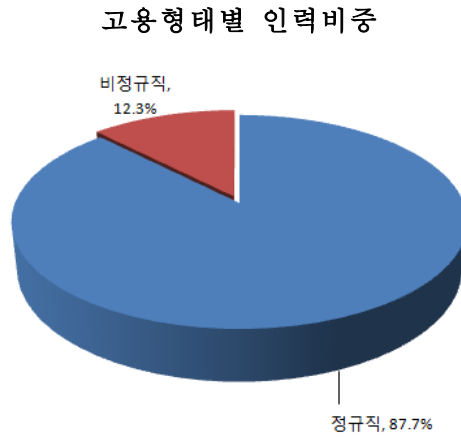
□ 업종별 인력 비중

-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금융인력 중 조사 대상자의 43.6%가 은행에, 보험은 23.5%, 증권/선물이 18.0%, 여신전문이 6.2%, 신한협이 3.7%, 상호저축이 3.4% 그리고 자산운용이 1.6%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의 87.7%가 정규직이고, 12.3%가 비정규직임.



□ 성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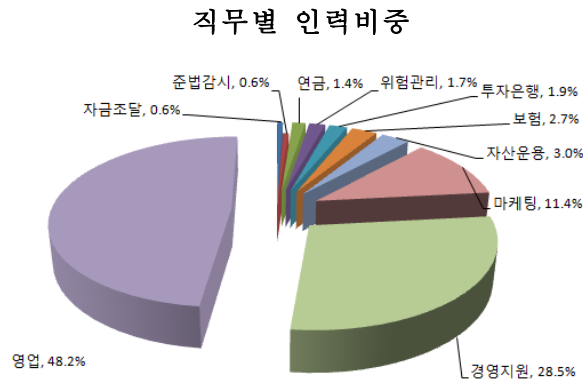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56.0%가 남성이고, 44.0%는 여성임.



2) 금융인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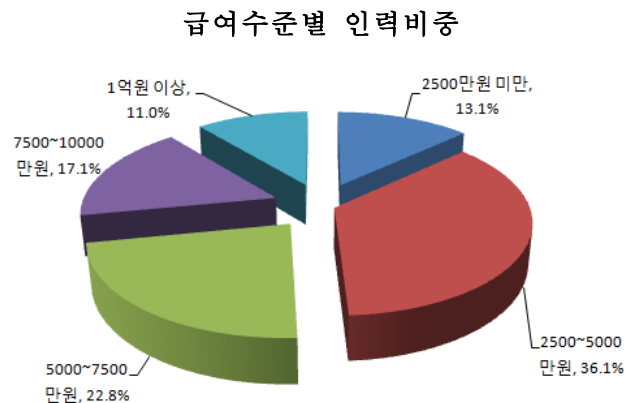
□ 직무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 전체 금융인력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48.2%)이며, 다음으로 경영지원(28.5%), 마케팅(11.4%), 자산운용(3.0%), 보험(2.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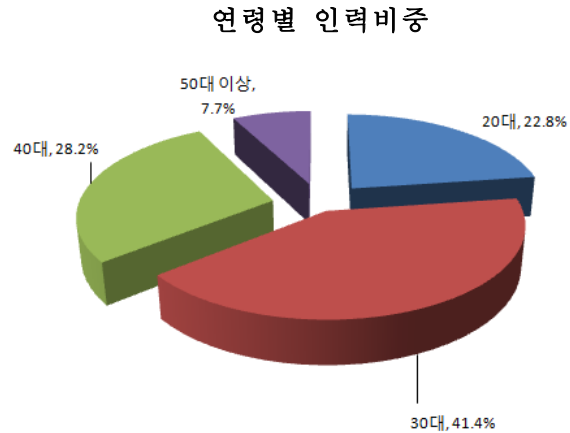
□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의 36.1%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5,000~7,500만원 미만(22.8%), 7,500~1억원 미만(17.1%), 2,500만원 미만(13.1%), 1억 이상(1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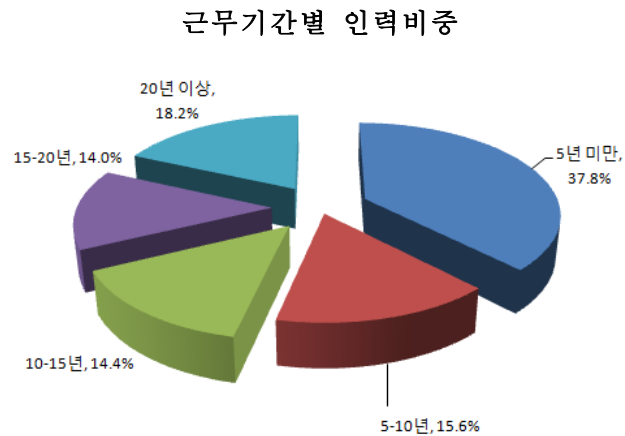
□ 연령별 인력 비중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40대 (28.2%), 20대(22.8%) 순이고, 50대 이상은 소수(7.7%)에 그침.



□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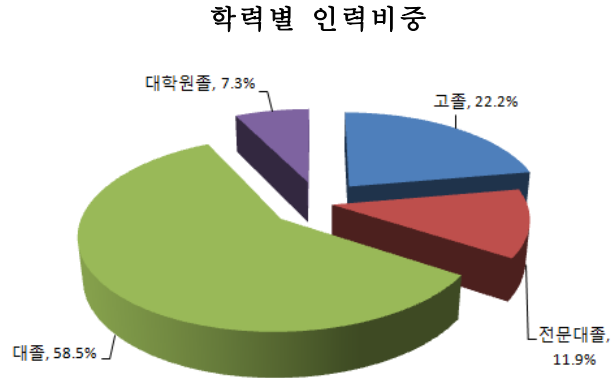
- 총 근무 기간별로는 근무기간 5년 미만인 금융 인력의 비중이 전체의 37.8%이고, 5~10년 15.6%, 10년~15년 14.4%, 15~20년 14.0%, 20년 이상 18.2%로 나타남.



3) 금융인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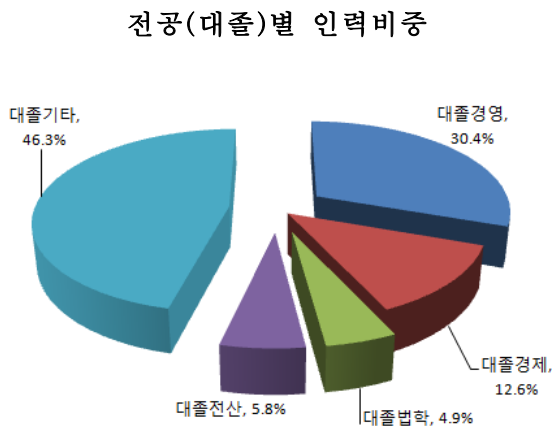
□ 학력별 인력 비중

- 학력별로는 대졸이 과반 이상(58.5%)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고졸(22.2%), 전문대졸(11.9%), 대학원졸(7.3%) 순임.



□ 전공(대졸)별 인력 비중

- 대졸자의 전공별 인력 비중은 기타가 46.3%로 가장 높고, 이어 경영·회계(30.4%), 경제(12.6%), 전산(5.8%), 법학(4.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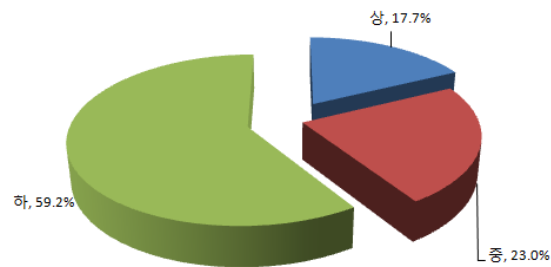


□ 영어능력별 인력 비중

- 영어능력 기준으로 ‘상’에 해당하는 인력비중은 전체 인력의 17.7%에 불과하고, ‘중’이 23.0%, ‘하’가 59.2%임*.

* 영어능력의 경우 상(TOEIC 875 이상), 중(TOEIC 725~875), 하(TOEIC 725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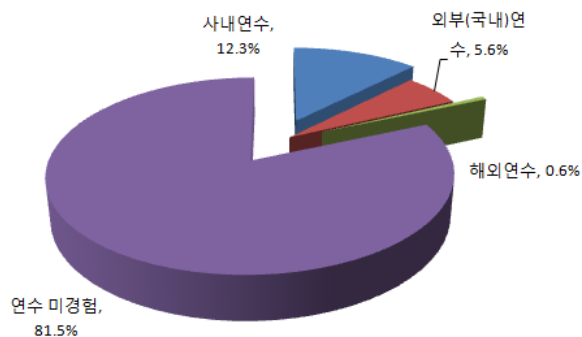
영어능력별 인력비중



□ 연수 종류별 수혜자 비중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 중 3주 이상의 해외연수를 받은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3개월 이상의 외부(국내) 및 사내연수를 받은 비율은 각각 5.6%와 12.3%로 조사됨.
- 해외연수나 3개월 이상 국내연수를 받지 못한 인력의 비율은 81.5%에 달함.

국내외 연수 수혜자 비율



나. 세부 분석결과

1) 금융인력 고용

(1) 고용형태

① 업권별 고용형태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정규직 비중은 87.8%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6.7%¹⁾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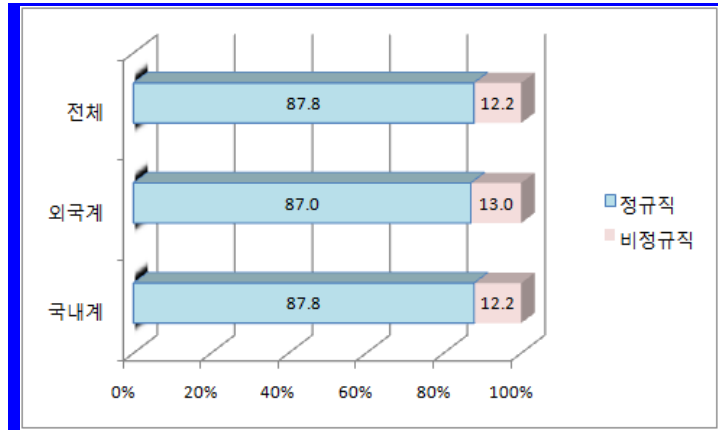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증권/선물(79.9%)과 여신전문(76.9%)의 정규직 비중이 낮은 반면, 보험(94.1%)과 신탁(89.8%)은 높게 나타남.

○ 2010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인력구조는 정규직 비중이 87.8%, 비정규직 비중이 12.2%로 보험(94.1%), 신탁(89.8%), 은행(89.3%), 상호저축(86.1%)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여신전문(76.9%), 증권/선물(79.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증권/선물업이 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은 동업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데다 이동성이 높은 증권전문 인력의 경우 계약직의 고용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계의 경우 정규직 비중(87.8%)이 외국계(8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보험(95.5%)과 은행(89.5%)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증권·선물(79.5%)과 여신전문(76.3%)에서 낮은 비중을 보임.

1) 2010년 8월 통계청 자료 (p. 16 표 참조)

국내외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표 II-1> 업권·국내외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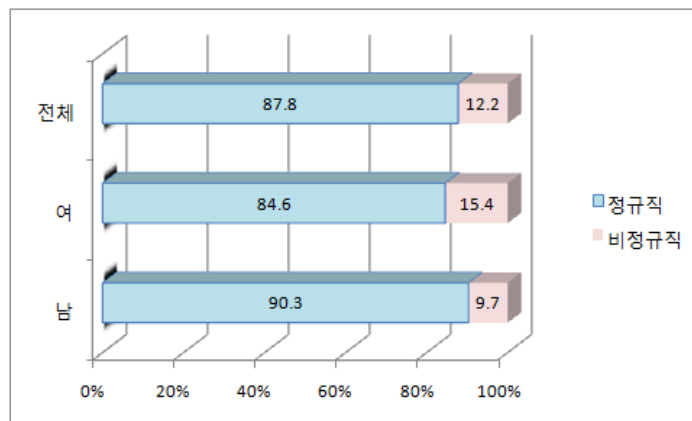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정규직	87.8	87.8	87.0	89.3	89.5	83.6	94.1	95.5	86.7	79.9	79.5	95.0
비정규직	12.2	12.2	13.0	10.7	10.5	16.4	5.9	4.5	13.3	20.1	20.5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정규직	83.2	80.5	93.5	86.1	86.1	-	76.9	76.3	84.3	89.8	89.8	-
비정규직	16.8	19.5	6.5	13.9	13.9	-	23.1	23.7	15.7	10.2	1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 고용 현황

성별 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성은 90.3%, 여성은 84.6%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남녀별 정규직 비중(각각 72.9%, 58.2%)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 모두 금융산업의 고용안정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양호함을 시사함.

- 성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성(90.3%)의 정규직 비중이 여성(84.6%)보다 높게 나타남.
 - － 이는 금융업의 여성인력 활용이 창구, 보조업무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의 남성 정규직 비중(96.8%)이 여성 정규직 비중(91.6%)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 － 반면 자산운용의 남녀별 정규직 비중(각각 82.6%, 84.5%)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 한편, 남녀 모두의 정규직 비중(각각 90.3%, 84.6%)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남녀 정규직 비중(각각 72.9%, 58.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

나, 성별 구분 없이 금융산업의 고용안정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성별 고용형태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6.7	72.9	58.2
비정규직	33.3	27.1	41.8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2010.08),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표 11-2> 업권·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illegible]

- 전반적으로는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은행의 남녀별 정규직 비중 각각 76.9%, 72.9%로 성별 정규직 비중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 다른 분야에 비하여 투자직무의 남성 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은 M&A, 채권·주식 운용 등 IB업무 특성상 성과급 계약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은행권에서도 투자직무를 중심으로 성과급 계약직 고용사례 증가됨.
 - － 단순·보조 업무비중이 낮은 투자직무의 업무 특성으로 성별 정규직 비중의 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표 II-4> 직무·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전체		87.8	12.2	100.0
	남	90.3	9.7	100.0
	여	84.6	15.4	100.0
경영지원		88.1	11.9	100.0
	남	88.3	11.7	100.0
	여	87.8	12.2	100.0
마케팅		93.0	7.0	100.0
	남	94.9	5.1	100.0
	여	91.1	8.9	100.0
보험		93.4	6.6	100.0
	남	95.9	4.1	100.0
	여	88.6	11.4	100.0
연금		85.0	15.0	100.0
	남	89.2	10.8	100.0
	여	75.6	24.4	100.0
영업		87.3	12.7	100.0
	남	92.3	7.7	100.0
	여	81.8	18.2	100.0
위험관리		77.9	22.1	100.0
	남	85.9	14.1	100.0
	여	64.7	35.3	100.0
자금조달		88.7	11.3	100.0
	남	95.3	4.7	100.0
	여	80.8	19.2	100.0
자산운용		80.6	19.4	100.0
	남	78.0	22.0	100.0
	여	86.5	13.5	100.0
준법감시		93.5	6.5	100.0
	남	93.6	6.4	100.0
	여	93.2	6.8	100.0
투자은행		76.3	23.7	100.0
	남	76.9	23.1	100.0
	여	72.9	2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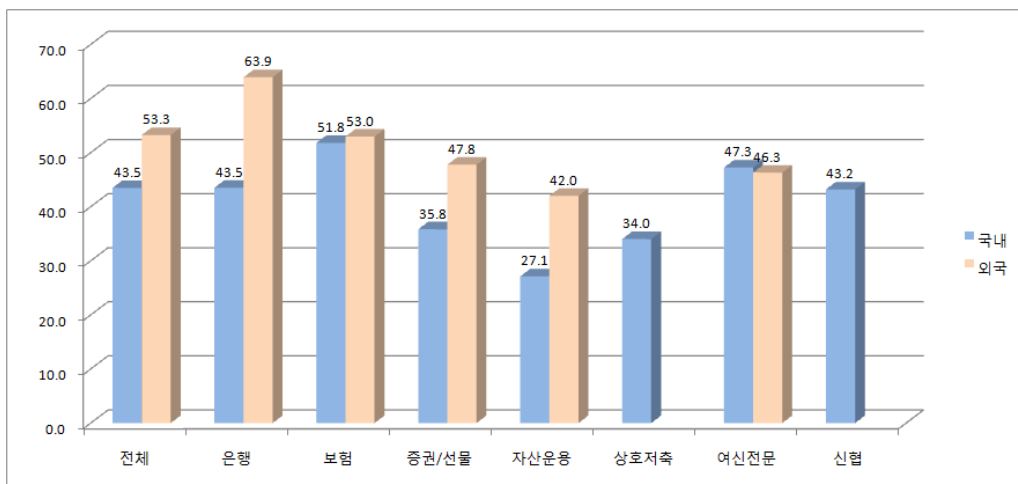
(2) 여성 고용

① 국내외별 여성 고용현황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고용비중은 과반에 못 미치나 (44.1%)²⁾, 외국계의 경우 여성비중은 53.3%에 달함.

- 조사대상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비중이 4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53.3%로 남성 비중 (46.7%)보다 높게 조사됨.
- － 외국계 은행 및 보험의 여성비중은 각각(63.9%, 53.0%)로 남성비중(36.1%, 47.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 반면 외국계 자산운용의 여성 고용비율은 4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 국내계의 여성 고용비율은 보험업(51.8%)이 가장 높고, 자산운용 (27.1%)이 가장 낮은 수준임.

업권 및 국내외별 여성 비중



2) 통계청(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여성 고용비중은 41.6%로 나타났다.

② 업종별 여성 고용현황

업종별로 여성의 고용비중은 보험(52.0%)과 여신전문(47.2%)에서 가장 높게, 자산운용(30.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여성 고용비중은 보험(52.0%)이 가장 높고, 이어 여신전문(47.2%), 은행(44.0%), 신탁(43.2%) 순임.
- 여성 고용비중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30.2%)과 상호저축(34.0%)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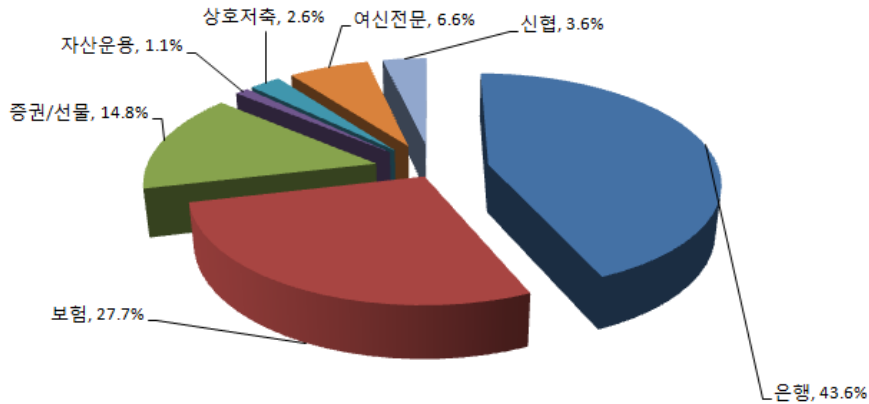
<표 II-5> 업권·국내외별 여성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남성	55.9	56.5	46.7	56.0	56.5	36.1	48.0	48.2	47.0	63.8	64.2	52.2
여성	44.1	43.5	53.3	44.0	43.5	63.9	52.0	51.8	53.0	36.2	35.8	4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남성	69.8	72.9	58.0	66.0	66.0	-	52.8	52.7	53.7	56.8	56.8	-
여성	30.2	27.1	42.0	34.0	34.0	-	47.2	47.3	46.3	43.2	43.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업종별로 여성의 고용분포를 보면, 여성 금융기관 종사자의 43.6%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27.7%는 보험업에 종사함.
- 국내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45.4%가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데 반해, 외국계 기관의 여성은 보험(61.6%)이 은행(19.9%)보다 많은 수가 근무함.

여성의 업권별 고용 분포



- 남성의 경우 국내계는 대다수(43.7%)가 은행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외국계는 은행에 소속된 비중이 12.9%에 불과하고 보험(62.3%), 증권/선물(9.3%)이 높게 나타남.

<표 II-6> 여성의 업권·국내외별 고용 분포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남성	100.0	100.0	100.0	43.7	45.4	12.8	20.2	17.9	62.3	20.5	21.1	9.3
여성	100.0	100.0	100.0	43.6	45.4	19.9	27.7	25.1	61.6	14.8	15.3	7.5
계	100.0	100.0	100.0	43.7	45.4	16.6	23.5	21.0	61.9	18.0	18.6	8.3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남성	2.0	1.8	6.8	3.9	4.1	-	5.9	5.7	8.7	3.8	4.0	-
여성	1.1	0.9	4.4	2.6	2.8	-	6.6	6.6	6.6	3.6	3.9	-
계	1.6	1.4	5.5	3.3	3.5	-	6.2	6.1	7.6	3.7	3.9	-

③ 직무별 여성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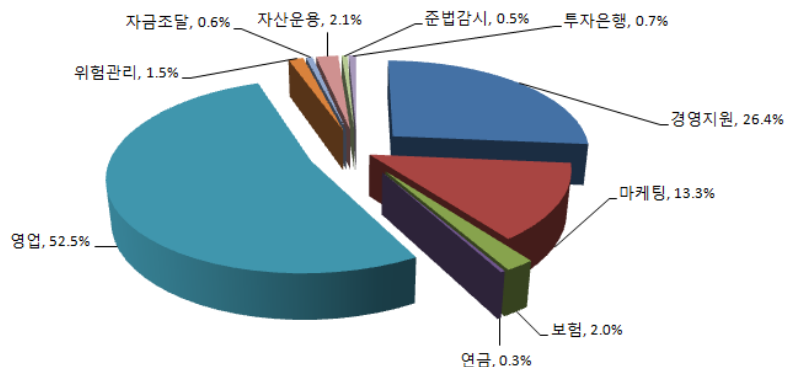
직무별 여성 종사자의 비중은 영업 부문에서 높게, 준법감시 및 연금 부문에서 낮게 나타남.

업종별로는 국내 은행의 경우 여성은 주로 영업에 편중(68.3%)되어 있는데 반해, 외국계 증권/선물은 경영지원(77.4%)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음.

① 여성의 직무별 분포

- 여성의 직무별 고용 분포에서 영업부문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 주로 여성인력을 비정규직 (68.3%)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금융계 관행을 반영함.
- 투자은행 직무의 여성고용 비중(15.9%)은 다른 직무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
 - － 투자은행 직무는 M&A, 채권운용 등 비교적 고난이도 업무비중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여성이 단순·보조업무를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음을 시사함.

여성의 직무별 고용 분포



<표 II-7> 직무·고용형태별 여성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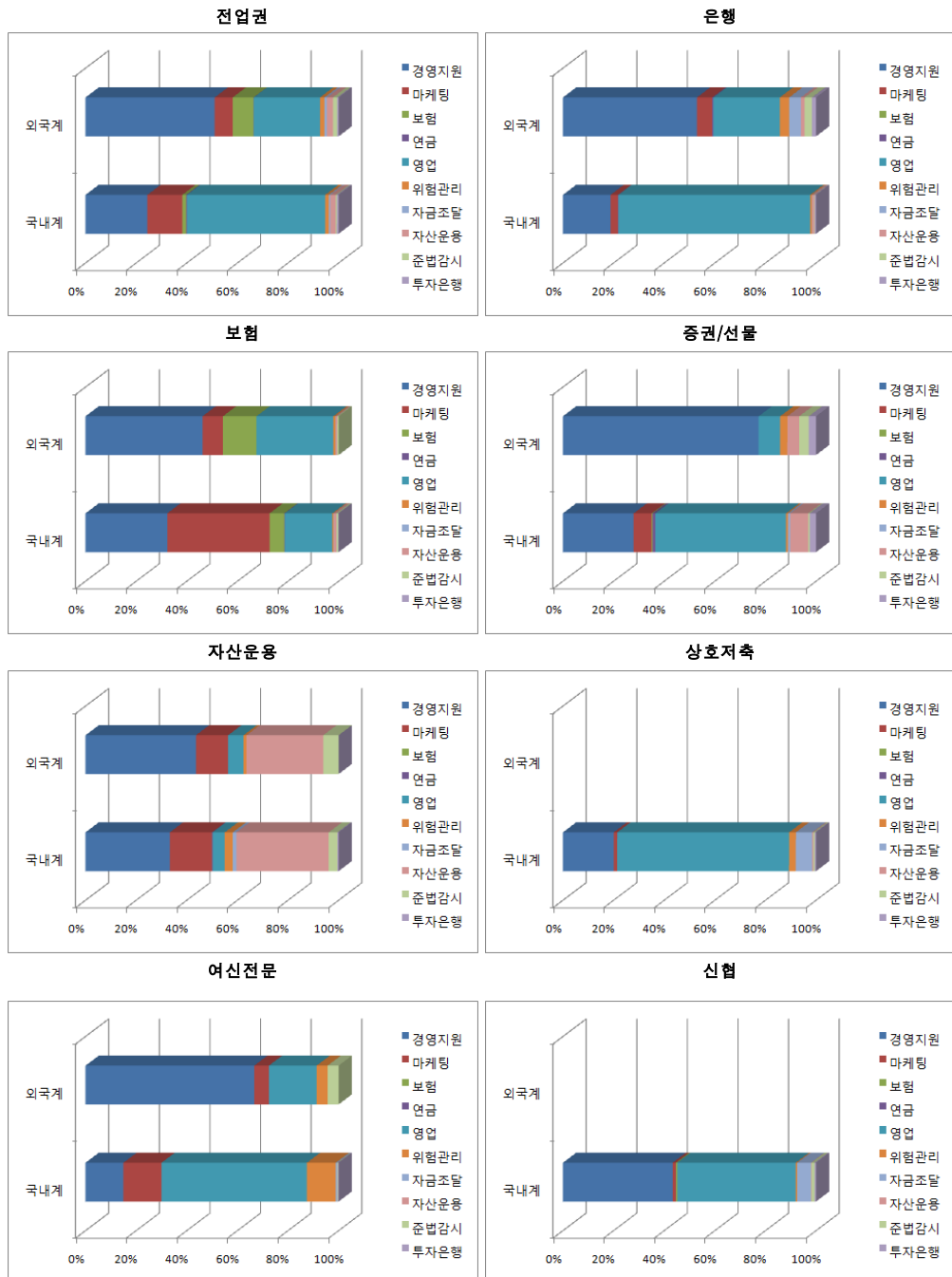
		남성	여성	계
전체		55.8	44.2	100.0
	정규	57.4	42.6	100.0
	비정규	44.2	55.8	100.0
경영지원		59.4	40.6	100.0
	정규	59.6	40.4	100.0
	비정규	58.5	41.5	100.0
마케팅		49.1	50.9	100.0
	정규	50.1	49.9	100.0
	비정규	35.8	64.2	100.0
보험		66.8	33.2	100.0
	정규	68.5	31.5	100.0
	비정규	42.1	57.9	100.0
연금		69.1	30.9	100.0
	정규	72.5	27.5	100.0
	비정규	49.8	50.2	100.0
영업		52.3	47.7	100.0
	정규	55.3	44.7	100.0
	비정규	31.7	68.3	100.0
위험관리		62.4	37.6	100.0
	정규	68.8	31.2	100.0
	비정규	39.7	60.3	100.0
자금조달		54.8	45.2	100.0
	정규	58.8	41.2	100.0
	비정규	23.0	77.0	100.0
자산운용		69.3	30.7	100.0
	정규	67.1	32.9	100.0
	비정규	78.7	21.3	100.0
준법감시		64.3	35.7	100.0
	정규	64.4	35.6	100.0
	비정규	62.5	37.5	100.0
투자은행		84.1	15.9	100.0
	정규	84.8	15.2	100.0
	비정규	81.8	18.2	100.0

- 남성의 경우 영업 직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여성과 달리 투자은행(84.1%), 자산운용(69.3%), 연금(69.1%) 부분의 비중이 높게 조사됨.

② 여성의 국내외 및 업종별 직무 분포

- 여성의 직무 분포를 국내외 및 업종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국내 은행의 경우 여성이 주로 영업 직무에 편중(75.8%)되어 있는데 반해, 외국계 은행에서는 경영지원과 영업(각각 53.0%, 26.2%)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 국내 증권/선물사의 경우 역시 여성의 대부분이 영업(51.6%)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외국 증권사에서는 영업(8.5%)보다는 경영지원(77.4%)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외국계에서 여성의 경영지원 업무 종사자 분포가 국내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계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출하여 현업인원 대비 IT, Back Office 등 영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후선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함.

여성의 국내외 및 업종별 직무 분포



③ 직무별 여성 대졸 이상 학력자 분포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직무별 분포를 보면, 영업(53.8%)이 가장 높았고, 연금(0.4%), 법규준수(0.7%)와 자금조달(0.6%) 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 영업(45.1%)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금조달(0.6%), 연금(0.7%)의 비중은 낮게 조사됨.

<표 II-8> 직무별 대졸 이상 여성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지원	마케팅	보험	연금	영업	위험관리	자금조달	자산운용	준법감시	투자은행
여성	100.0	27.2	9.8	2.1	0.4	53.8	1.3	0.6	3.0	0.7	1.0
남성	100.0	31.1	9.5	3.4	0.7	45.1	1.8	0.6	4.1	0.8	2.9
계	100.0	29.7	9.6	2.9	0.6	48.3	1.6	0.6	3.7	0.7	2.2

④ 연령별 여성 고용현황

모든 직무에서 40대 이후 여성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함.
 영업 직무의 경우, 고연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대고객 업무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하여, 50대 이후 여성의 비중이 크게 축소됨.(40대: 54.6% → 50 대이상: 38.0%)³⁾

① 연령 및 직무별 여성고용 비중

- 금융업 종사자의 여성 비중과 연령은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40대 이후 여성의 고용비중 하락이 두드러짐.
 - － 40대 이후 여성의 자발·비자발적 취업 포기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의미임.

<표 II-9> 연령별 여성 비중

(단위 :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여성	44.0	74.4	50.1	20.5	7.9
남성	56.0	25.6	49.9	79.5	9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연령분포에 대한 무응답 사례가 있어서 전체 인원엔 차이가 있음.

- 모든 직무에서 여성의 비중은 4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함.
 - － 30대 여성의 비중 하락은 상당부분 남성의 본격적인 채용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3) 통계청(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산업에서 연령별 여성비중은 20대 이하 52.9%, 30대 36.4%, 40대 40.7%, 50대 이상 40.6%로 나타났다.

<표 II-10> 연령·직무별 여성 비중

(단위 : %)

		전체	경영 지원	마케팅	보험	연금	영업	위험 관리	자금 조달	자산 운용	준법 감시	투자 은행
20대	여성	74.4	75.6	77.6	52.3	75.3	75.5	74.9	78.1	57.9	74.6	55.2
	남성	25.6	24.4	22.4	47.7	24.7	24.5	25.1	21.9	42.1	25.4	4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대	여성	50.1	49.9	51.6	35.0	29.9	55.2	35.7	40.3	31.3	48.1	15.5
	남성	49.9	50.1	48.4	65.0	70.1	44.8	64.3	59.7	68.7	51.9	8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대	여성	20.5	19.9	23.8	13.1	9.8	22.2	12.0	22.6	10.6	23.1	3.3
	남성	79.5	80.1	76.2	86.9	90.2	77.8	88.0	77.4	89.4	76.9	9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대 이상	여성	7.9	7.9	14.9	5.5	4.6	7.6	5.3	19.8	1.9	7.1	0.9
	남성	92.1	92.1	85.1	94.5	95.4	92.4	94.7	80.2	98.1	92.9	9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여성의 연령 및 직무별 고용 분포

○ 금융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대다수(85.4%)가 30대 이하이며, 40대 이상은 소수(14.6%)에 불과함.

－ 남성은 30대, 40대가 금융업 종사자의 주축(77.1%)을 이룸.

<표 II-11> 여성의 연령별 고용 분포

(단위 :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여성	100.0	38.3	47.1	13.2	1.4
남성	100.0	10.4	36.9	40.2	12.5
계	100.0	22.7	41.4	28.3	7.6

○ 직무별로 보면, 전 연령에 걸쳐 영업 직무를 담당하는 여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영업 직무 비중(38.0%)이 크게 하

락하는 대신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50.5%)이 증가함.

- 50대 여성의 영업 직무의 고용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대고객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표 II-12> 여성의 연령·직무별 분포

(단위 : %)

		전체	경영 지원	마케팅	보험	연금	영업	위험 관리	자금 조달	자산 운용	준법 감시	투자 은행
20대	여성	100.0	22.4	13.4	2.1	0.3	56.1	1.8	0.8	2.0	0.3	0.9
	남성	100.0	21.0	11.2	5.5	0.3	52.9	1.7	0.6	4.2	0.3	2.1
	계	100.0	22.0	12.8	3.0	0.3	55.3	1.8	0.7	2.6	0.3	1.2
30대	여성	100.0	27.5	14.2	2.2	0.3	50.2	1.3	0.5	2.5	0.6	0.7
	남성	100.0	27.8	13.4	4.1	0.7	40.8	2.4	0.8	5.4	0.6	3.9
	계	100.0	27.7	13.8	3.1	0.5	45.5	1.9	0.7	3.9	0.6	2.3
40대	여성	100.0	28.6	10.8	1.5	0.2	54.6	0.9	0.6	1.4	1.0	0.3
	남성	100.0	29.8	8.9	2.5	0.5	49.5	1.6	0.5	3.1	0.9	2.6
	계	100.0	29.5	9.3	2.3	0.5	50.6	1.5	0.6	2.7	0.9	2.2
50대 이상	여성	100.0	50.5	7.6	0.8	0.1	38.0	0.8	0.8	0.2	1.0	0.1
	남성	100.0	50.6	3.7	1.2	0.2	39.5	1.3	0.3	1.0	1.2	1.1
	계	100.0	50.6	4.1	1.1	0.2	39.4	1.2	0.3	0.9	1.2	1.0

⑤ 근무기간별 여성 고용현황

남성의 71.0%가 동일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51.2%로 조사됨.

전업종에서 5년 이상 근속자 중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국내외별로는 외국계의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여성 48.4%, 남성 58.4%)이 남녀 모두 국내계(여성 51.3%, 남성 7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계의 고용이 국내계보다 유연함을 시사함.

① 여성의 근무기간별 고용 분포

- 금융기관 여성종사자의 48.8%가 동일 직장에서도 5년 미만 근무하고 있고,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은 33.8%에 불과함.
 - － 남성은 과반 이상인 56.7%가 동일 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장기 근속자 비중이 낮은 여성과는 대비됨.

<표 II-13> 여성의 근무기간별 고용 분포

(단위 : %)

	전체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여성	100.0	48.8	17.3	13.6	11.4	8.8
남성	100.0	29.0	14.3	15.1	16.0	25.6
계	100.0	37.7	15.6	14.4	14.0	18.2

② 여성의 업종 및 국내외별 5년 이상 근무자 비율

- 동일 직장에서도 5년 이상 근무한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및 남성 모두 국내계(여성 51.3%, 남성 71.6%)가 외국계(여성 48.4%, 남성 58.4%)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 금융계 종사자의 정규직 비중은 국내계(87.8%)가 외국계(87.0%) 보다 높게 조사되어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국내계 금융기관의 고용이 외국계보다 유연하다는 것을 시사함.

○ 타업권에 비해 보험업권 여성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이 국내계 69.5%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여성의 5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여신전문으로 국내계가 35.9%로 조사됨.
- 남성의 경우 5년 이상 근속비율이 은행업의 경우 국내계 81.7%와 자산운용업의 외국계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4> 업종·국내외별 5년 이상 근무 여성 비율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여성	51.2	51.3	48.4	47.2	47.1	48.7	66.1	69.5	48.7	44.4	44.5	41.7
남성	71.0	71.6	58.4	81.5	81.7	54.5	75.8	78.6	60.2	53.4	53.7	39.8
계	62.3	62.8	53.2	66.5	66.6	50.8	70.7	73.9	54.1	50.1	50.4	40.7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여성	38.2	32.0	53.3	38.1	38.1	-	35.9	35.2	49.4	51.7	51.7	-
남성	57.8	54.5	73.6	50.2	50.2	-	56.9	57.1	54.1	68.9	68.9	-
계	51.9	48.5	65.0	46.1	46.1	-	47.1	46.9	52.2	61.3	61.3	-

4) 업권·국내외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2-나-(1)-①] 참조

⑥ 학력별 여성 분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대졸이상 학력자 비중(51.8%)이 남성(77.2%)보다 크게 낮고, 대학 전공에 있어서는 기타 전공자 비중(여 60.8%, 남 38.2%)이 높게 나타남.⁵⁾

-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은 여성(51.8%)이 남성(77.2%)에 비해 낮게 조사됨.
- 이는 무엇보다 과거에 창구영업, 단순 보조업무 등을 중심으로 고졸 여성을 많이 채용한 결과로 추정됨.

<표 II-15> 성별 학력 분포

(단위 : %)

	전체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여성	100.0	28.1	20.2	48.5	3.3
남성	100.0	17.5	5.3	66.6	10.6
계	100.0	22.1	11.9	58.6	7.4

- 경영, 경제, 법학, 전산 등의 전공을 수학한 비율은 여성이 39.2%, 남성은 61.8%임.

<표 II-16> 여성의 대학 전공별 분포

(단위 : %)

	전체	경영/회계	경제	법학	전산	기타
여성	100.0	22.8	8.4	2.5	5.5	60.8
남성	100.0	34.8	14.9	6.2	5.8	38.2
계	100.0	30.4	12.6	4.9	5.7	46.4

5) 통계청(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산업에서 여성의 학력분포는 중졸이하 26.5%, 고졸 38.9%, 전문대졸 13.0%, 대졸이상 21.5%로 나타남.

7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

여성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국가자격의 경우는 남성보다 낮게, 민간자격의 경우는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1.15%)은 국가자격의 경우 남성(2.37%)보다 낮았고, 법정자격 및 민간자격의 경우는 남성의 소지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업무가 주는 학습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학력에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비핵심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나-(2)-3-3: 「직무별 여성 대졸이상 학력자 분포」 참조).

○ 법정자격증의 경우 여성의 소지자 비율(70.30%)은 남성(67.8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국제통용자격의 경우 남성의 소지자 비율(2.73%)이 여성(1.18%)보다 높게 조사됨.

<표 II-17> 여성의 금융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단위 : %)

	국가자격				법정 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소계	변호사	회계사	기타		소계	공인	비공인	소계	AICPA	CFA	FRM	기타
여성	1.15	0.06	0.12	0.97	70.30	22.3	12.23	10.07	1.18	0.38	0.17	0.27	0.36
남성	2.37	0.11	1.12	1.14	67.83	20.97	13.93	7.04	2.73	0.60	0.53	1.03	0.57
전체	3.52	0.09	0.68	1.06	68.92	43.27	13.18	8.37	2.05	0.50	0.37	0.69	0.48

(3) 외국인 고용

① 업종별 외국인 현황

조사대상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외국인 비중은 0.6%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국제적인 금융인력의 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 언어장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단, 외국계(3.4%)의 외국인 비중은 국내계(0.5%)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종사자 중 외국인 비중은 0.6%로 매우 낮음.
- 단,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 비중은 3.4%로 국내계(0.5%)보다 높음.

○ 업종별로는 자산운용(2.7%)과 증권/선물(1.2%)의 외국인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계 은행업의 경우 무려 16.1%가 외국인으로 조사됨.

-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고용비중은 16.1%로 나타난 반면, 국내계 은행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8> 업종별 외국인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내국인	99.4	99.5	96.6	99.4	99.6	83.9	99.7	99.8	99.2	98.8	98.9	93.6
외국인	0.6	0.5	3.4	0.6	0.4	16.1	0.3	0.2	0.8	1.2	1.1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내국인	97.3	98.4	93.4	99.4	99.4	-	99.6	99.7	96.6	99.8	99.8	-
외국인	2.7	1.6	6.6	0.6	0.6	-	0.4	0.3	3.4	0.2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70.2%가 국내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외국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은 29.8%로 조사됨.
- －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 39.0%가 은행에, 34.1%가 증권/선물에 소속됨.

<표 II-19> 외국인의 업권별 고용 분포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내국인	100.0	94.8	5.2	43.3	42.8	0.5	23.6	19.9	3.7	17.2	16.7	0.5
외국인	100.0	70.2	29.8	39.0	24.5	14.5	10.6	5.6	5.0	34.1	29.0	5.1
계	100.0	94.6	5.4	43.3	42.7	0.6	23.5	19.8	3.7	17.3	16.8	0.5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내국인	1.6	1.3	0.3	3.1	3.1	-	6.0	5.7	0.3	5.3	5.3	-
외국인	6.9	3.4	3.5	3.2	3.2	-	4.2	2.5	1.7	1.8	1.8	-
계	1.6	1.3	0.3	3.1	3.1	-	6.0	5.7	0.3	5.2	5.2	-

② 직무별 외국인 고용현황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대고객 업무 비중이 높은 영업 직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직무별 고용분포를 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마케팅, 보험, 영업 직무에 종사하는 비중(각각 6.1%, 1.4%, 37.4%)은 낮게 나타난 반면, 경영지원(36.2%), 리스크관리(3.4%), 자금조달(0.9%), 자산관리(5.7%), 법규 준수(1.2%), 투자은행(7.3%)의 직무 비중은 높게 조사됨.
- － 외국인이 자금조달 및 영업 직무에 분포하는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 것은 동 직무의 대고객 업무 비중이 높은 특징에 기인함.

<표 II-20> 외국인의 직무별 고용 분포

(단위 : %)

	전체	경영 지원	마케팅	보험	연금	영업	위험 관리	자금 조달	자산 운용	준법 감시	투자 은행
내국인	100.0	29.9	11.5	2.7	0.4	47.8	1.7	0.6	3.0	0.6	1.8
외국인	100.0	36.2	6.1	1.4	0.4	37.4	3.4	0.9	5.7	1.2	7.3
계	100.0	30.0	11.5	2.7	0.4	47.7	1.7	0.6	3.0	0.6	1.8

2) 금융인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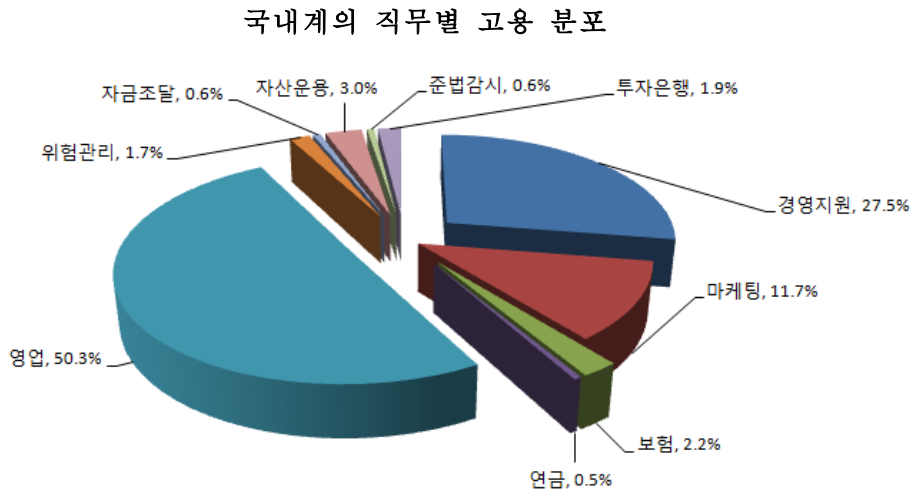
(1) 직무

① 업종별 직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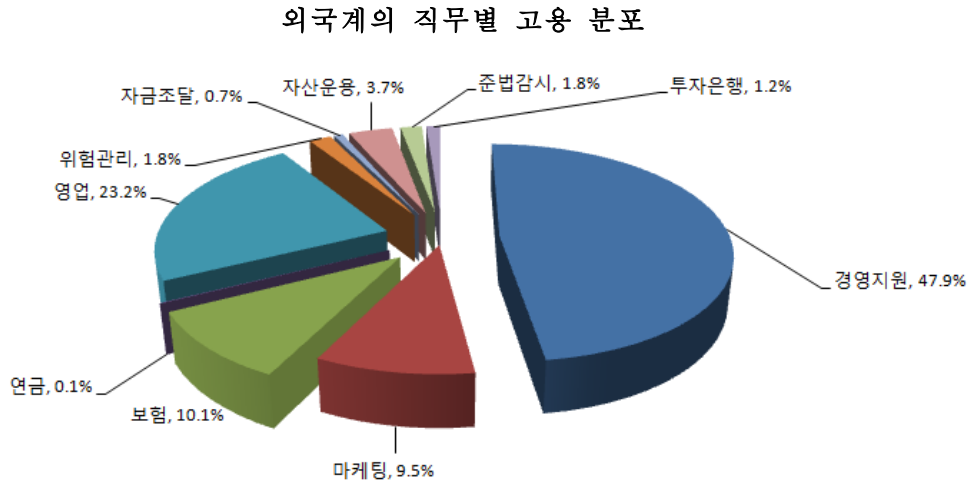
자산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 걸쳐 경영지원 및 영업 직무의 인력비중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 자산운용은 영업 인력 비중이 적고, 자산관리 직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업종에 걸쳐 가장 높은 인력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48.7%)이며, 다음으로 경영지원(28.8%), 마케팅(11.5%), 자산운용(3.1%), 보험(2.7%) 순으로 나타남.
- 국내계는 영업(50.3%)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계는 경영지원(47.9%)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외국계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국내계에 비하여 현업인원 대비 IT, Back Office 등 필수적인 후선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함.



- 업종별로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직무를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 상호저축, 여신전문은 영업(각각 67.1%, 47.7%, 57.3%, 49.6%), 보험과 신탁은 경영지원(각각 35.5%, 50.3%), 자산운용은 자산운용 직무(45.9%)로 조사됨.
- 은행의 영업 직무에 투입된 인력 비중이 높은 것은 대고객 창구를 통한 개인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은행의 특성을 반영함.
 - 외국계 은행의 경우, 경영지원(49.5%) 외에 영업(28.5%) 부문의 인력 투입이 많은 것은 국내 대기업이나 자국의 한국 진출기업, 다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여신, 외국환, 수탁관리, 기업 금융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 자산운용의 경우 자산관리 직무 다음으로 경영지원(25.7%) 직무의 인력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21> 업권·국내외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경영지원	28.8	27.5	47.9	23.4	22.8	49.5	35.5	33.1	47.7	29.5	28.7	56.2
마케팅	11.5	11.7	9.5	4.2	4.1	5.9	32.5	36.4	12.3	4.8	5.0	0.0
보험	2.7	2.2	10.1	0.0	0.0	0.0	10.9	9.9	16.3	0.6	0.6	0.0
연금	0.4	0.5	0.1	0.3	0.3	0.5	0.4	0.5	0.0	1.2	1.2	0.0
영업	48.7	50.3	23.2	67.1	68.0	28.5	17.8	17.2	21.0	47.7	48.4	22.4
위험관리	1.7	1.7	1.8	1.4	1.3	4.4	0.8	0.8	0.9	1.1	1.1	1.8
자금조달	0.6	0.6	0.7	0.4	0.3	3.7	0.1	0.1	0.1	0.8	0.9	0.0
자산운용	3.1	3.0	3.7	1.4	1.3	2.4	1.2	1.2	1.0	7.7	7.8	6.8
준법감시	0.7	0.6	1.8	0.3	0.2	3.3	0.6	0.6	0.7	0.9	0.8	3.2
투자은행	1.9	1.9	1.2	1.6	1.6	1.8	0.2	0.2	0.0	5.6	5.5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경영지원	25.7	24.2	31.3	32.9	32.9	-	25.4	23.6	48.7	50.3	50.3	-
마케팅	12.8	13.5	9.8	1.7	1.7	-	13.6	14.3	4.5	1.5	1.5	-
보험	0.0	0.0	0.0	0.0	0.0	-	0.0	0.0	0.0	0.4	0.4	-
연금	0.1	0.2	0.0	0.0	0.0	-	0.0	0.0	0.0	0.0	0.0	-
영업	7.4	6.1	12.5	57.3	57.3	-	49.6	50.5	38.1	39.5	39.5	-
위험관리	2.8	2.9	2.3	1.5	1.5	-	9.0	9.4	3.8	1.2	1.2	-
자금조달	0.4	0.5	0.0	3.0	3.0	-	0.9	0.9	1.0	4.4	4.4	-
자산운용	45.9	47.9	38.0	0.9	0.9	-	0.0	0.0	0.0	0.3	0.3	-
준법감시	4.2	3.7	6.0	1.4	1.4	-	0.7	0.6	2.9	1.8	1.8	-
투자은행	0.7	0.9	0.3	1.2	1.2	-	0.8	0.8	1.0	0.5	0.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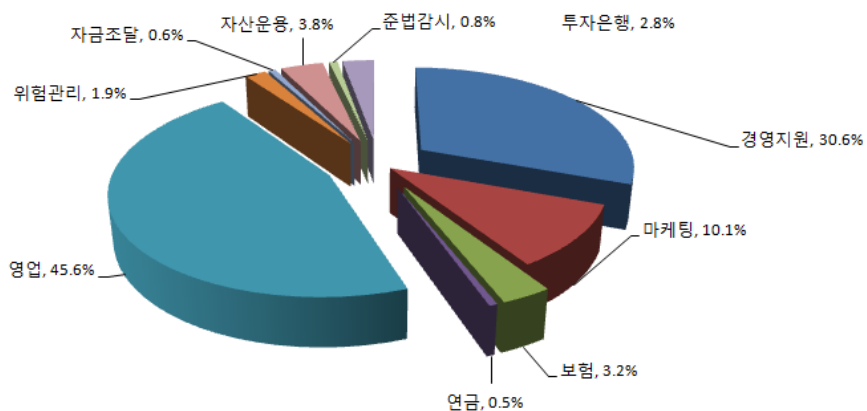
② 성별 직무 현황

성별 인력비중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성별 구분 없이 영업과 경영지원 부문이 높게 조사됨.

- 단, 자산운용은 자산관리 직무(남성:50.7%, 여성:34.8%)에 집중됨.

- 성별 구분 없이 영업과 경영지원 직무에 인력 비중이 높게 조사됨.
 - 단, 은행과 상호저축에서 여성의 영업 직무 비중은 각각 74.1%, 67.9%로 나타남.
 - 이는 은행, 상호저축이 대고객 창구영업 직무에 여성을 집중 고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자산운용은 업종 특성상 자산관리직무(남성:50.7%, 여성:34.8%)에 인력이 집중됨.
- 남성은 영업(45.6%), 경영지원(30.6%) 부문에서 비교적 고른 인력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영업(52.6%) 직무에 편중됨.

남성의 직무별 고용 분포



③ 연령별 직무 현황

업종별 직무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직무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각 직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법규준수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 모든 직무에서 40대 여성의 비중(5.8%)은 30대 여성의 비중(20.8%)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함.
 - －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직무에서 3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각각 36.6%, 42.2%)에 비하여 30대 여성 비중(각각 16.7%, 7.8%)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23> 직무별 연령·성별 분포

(단위 :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영지원	100.0	60.0	40.0	17.4	4.3	13.2	40.0	20.0	19.9	29.1	23.3	5.8	13.5	12.4	1.1
마케팅	100.0	49.2	50.8	25.1	5.6	19.5	49.4	23.9	25.5	22.8	17.4	5.4	2.7	2.3	0.4
보험	100.0	66.8	33.2	24.9	11.9	13.1	48.1	31.3	16.8	23.8	20.6	3.1	3.2	3.0	0.2
연금	100.0	69.1	30.9	18.1	4.5	13.6	46.8	32.8	14.0	31.7	28.6	3.1	3.4	3.2	0.2
영업	100.0	52.2	47.8	25.7	6.3	19.4	38.7	17.3	21.4	29.4	22.9	6.5	6.2	5.7	0.5
위험관리	100.0	62.6	37.4	23.7	5.9	17.8	46.1	29.6	16.4	24.8	21.8	3.0	5.5	5.2	0.3
자금조달	100.0	54.8	45.2	26.7	5.9	20.9	44.2	26.4	17.8	25.2	19.5	5.7	3.9	3.1	0.8
자산운용	100.0	69.5	30.5	19.2	8.1	11.1	53.3	36.6	16.7	25.2	22.5	2.7	2.3	2.3	0.0
준법감시	100.0	64.8	35.2	9.0	2.3	6.7	38.5	20.0	18.5	38.8	29.9	9.0	13.7	12.7	1.0
투자은행	100.0	83.4	16.6	14.1	6.3	7.8	50.0	42.2	7.8	32.0	30.9	1.0	3.9	3.9	0.0
계	100.0	56.0	44.0	22.7	5.8	16.9	41.4	20.7	20.8	28.3	22.5	5.8	7.6	7.0	0.6

④ 교육정도(학력, 전공, 자격증)별 직무 현황

학력별 인력 비중을 보면,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투자은행 직무는 학력이 높을수록, 영업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졸자의 전공분포에 있어서는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상경계(경영·경제) 전공자(60.1%)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보험과 마케팅에서는 기타 전공자의 비중(각각 57.1%, 48.7%)이 높음.

① 학력 및 성별 직무 비중

- 학력별로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비중을 보면, 영업은 학력이 낮을수록,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투자은행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졸 학력자가 영업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원졸 학력자는 29.3%만 영업 직무에 종사함.
 - － 자산관리 직무에서도 학력과 성별에 따른 직무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고졸이 자산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0.5%에 그친 것에 비하여, 대학원졸은 9.0%가 동일 업무에 종사함.
- 한편, 직무별로 대학 전공 분포를 보면, 투자은행 직무에서는 상경계(경영·경제) 전공자(60.1%)가, 보험과 마케팅에서는 기타 전공자(각각 57.1%, 48.7%)가 두각을 나타냄.
 - － 이는 모든 직무 중에서 투자은행 직무 부문이 전문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을 반영함.

<표 II-24> 학력·성별 직무 비중

(단위 : %)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영지원	28.8	30.9	26.2	24.1	26.0	22.5	29.1	36.7	26.5	29.7	31.1	27.2	35.6	34.6	39.5
마케팅	11.5	10.1	13.3	16.2	12.8	18.8	13.2	11.1	14.0	9.6	9.5	9.8	10.2	9.2	14.5
보험	2.7	3.2	2.0	1.5	1.4	1.6	4.3	10.3	2.3	2.9	3.4	2.1	1.7	1.4	2.7
연금	0.4	0.5	0.3	0.1	0.1	0.1	0.2	0.1	0.3	0.6	0.7	0.4	0.7	0.7	0.6
영업	48.6	45.3	52.7	55.7	57.2	54.6	48.6	37.2	52.5	48.3	45.1	53.8	29.3	30.8	23.2
위험관리	1.7	1.9	1.4	1.0	1.3	0.9	1.7	2.0	1.6	1.6	1.8	1.3	4.6	4.0	6.8
자금조달	0.6	0.6	0.7	0.5	0.4	0.6	0.9	1.0	0.9	0.6	0.6	0.6	0.7	0.7	0.7
자산운용	3.1	3.8	2.1	0.5	0.3	0.6	1.0	0.5	1.2	3.7	4.1	3.0	9.0	9.3	7.8
준법감시	0.7	0.8	0.5	0.3	0.3	0.2	0.5	0.9	0.4	0.7	0.8	0.7	1.3	1.2	1.7
투자은행	1.9	2.8	0.7	0.1	0.2	0.1	0.4	0.3	0.4	2.2	2.9	1.0	7.0	8.1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25> 직무별 대졸전공 분포

(단위 : %)

	전체	경영/회계	경제	법학	전산	기타
경영지원	100.0	29.6	10.6	5.5	10.2	44.1
마케팅	100.0	30.0	12.6	4.0	4.7	48.7
보험	100.0	20.9	10.0	7.3	4.7	57.1
연금	100.0	25.4	16.7	5.1	5.9	47.0
영업	100.0	30.6	13.1	4.5	3.6	48.3
위험관리	100.0	30.6	14.0	4.6	8.2	42.6
자금조달	100.0	33.3	16.9	3.8	3.8	42.3
자산운용	100.0	37.3	19.1	2.2	3.8	37.5
준법감시	100.0	27.3	9.9	20.5	3.5	38.8
투자은행	100.0	42.1	18.0	4.1	2.2	33.6
계	100.0	30.4	12.6	4.9	5.7	46.4

②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보유 비율

○ 직무별로 금융관련자격증 보유자 비율⁶⁾을 보면, 연금(120.2%) 직무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업(113.8%), 자산관리(99.7%), 마케팅(84.2%), 준법감시(74.0%) 순으로 나타남.

－ 연금 직무에 종사하는 금융인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조사대상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 직군이 타 직군보다 전문성을 필요로함을 시사함.

<표 II-26>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보유 비율

(단위 : %)

	전체	국가자격			법정 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변호사	손해 사정사	기타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타
경영지원	73.2	0.2	0.3	1.1	53.4	10.6	5.6	0.7	0.4	0.5	0.5
마케팅	84.2	0.1	0.4	1.4	61.8	15.0	4.5	0.2	0.1	0.3	0.3
보험	55.2	0.0	18.7	4.5	17.1	4.1	9.7	0.0	0.0	0.1	1.0
연금	120.2	0.0	0.0	4.2	90.5	18.0	1.9	0.2	1.3	3.5	0.8
영업	113.8	0.0	0.1	0.4	84.9	15.5	11.7	0.3	0.1	0.4	0.4
위험관리	59.8	0.1	0.1	3.0	33.5	8.8	4.0	1.1	1.0	6.9	1.2
자금조달	52.1	0.1	0.0	5.2	35.6	5.1	2.9	1.2	0.8	1.2	0.0
자산운용	99.7	0.1	0.0	1.8	74.0	9.1	3.7	2.1	3.6	4.3	1.1
준법감시	74.0	1.5	0.4	1.6	47.1	12.6	6.3	1.2	0.4	1.7	1.2
투자은행	71.4	0.0	0.0	6.5	48.9	6.0	2.3	2.2	2.6	1.9	0.9
계	94.3	0.1	0.7	1.1	68.9	13.2	8.4	0.5	0.4	0.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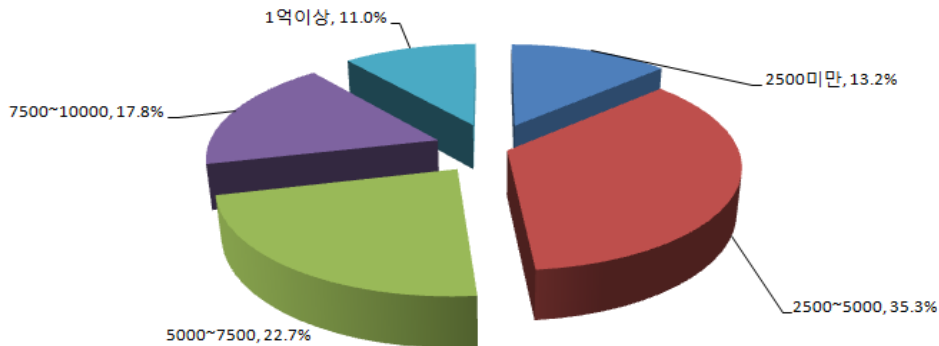
6) 자격증 보유자 비율 = (직무별 자격증 수/직무별 고용인원). 따라서 동일인이 복수의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동 비율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산됨.

(2)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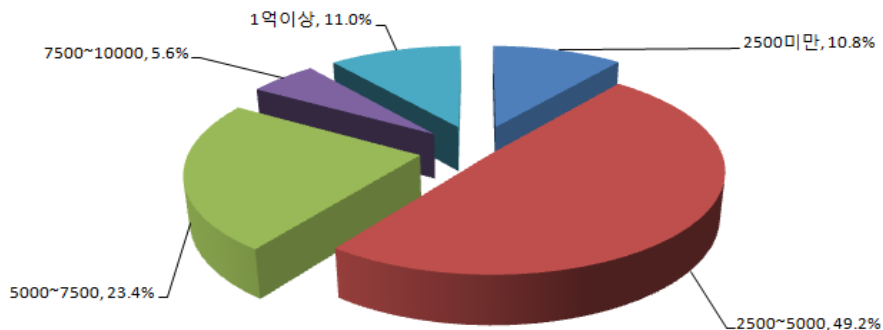
① 국내외 기관별 급여수준 현황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51.5%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계보다는 국내계의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⁷⁾

국내계의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외국계의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7) 통계청(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산업의 연평균급여액은 32,542,338원((정책급여+초과급여)×12+연간특별급여)이었음.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50.8%*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에 따른 비중은 2,500만원 미만 (13.1%), 2,500~5,000만원 미만(36.1%), 5,000~7,500만원 미만(22.7%), 7,500만원 이상(28.1%)

- 국내계는 5,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비율이 51.5%에 이르며, 외국계는 40.0%로 나타남.
- 자산운용사 직원의 64.0%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직무별 급여수준 현황

투자은행 직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고, 이어 자산운용 및 준법감시 순으로 나타남.

- * 직무별 최고빈도 임금수준: 경영지원, 마케팅, 보험, 영업, 위험관리, 자금조달, 자산운용 2,500~5,000만원 미만 (각각 32.8%, 53.8%, 51.2%, 33.9%, 31.0%, 40.3%, 32.3%), 연금, 준법감시, 투자은행 5,000만원~7,500만원 미만 (각각 32.8%, 32.9%, 28.2%)
-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 근무기간이 짧은 투자직무 종사자들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직무특성이 고용 인력의 업무능력 수준과 임금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직무별로 급여수준은 전반적으로 투자은행 직무에서 가장 높고, 이어 자산운용, 법규준수이고 보험과 자금조달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경영지원, 마케팅, 보험, 영업, 위험관리, 자금조달, 자산운용 2,500~5,000만원 미만 (각각 32.8%, 53.8%, 51.2%, 33.9%, 31.0%, 40.3%, 32.3%), 연금, 준법감시, 투자은행 5,000만원~7,500만원 미만 (각각 32.8%, 32.9%, 28.2%)

○ 직무별 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각 직무별로 성별 및 고용형태별 비중 차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증권/선물과 여신전문 직무의 정규직 비중은 각각 79.9%, 76.9%로 전체 평균인 87.8%보다 낮게 조사됨.

직무별 남성 비중은 투자은행이 84.1%로 제일 높고, 이어 자산운용(69.3%), 연금(69.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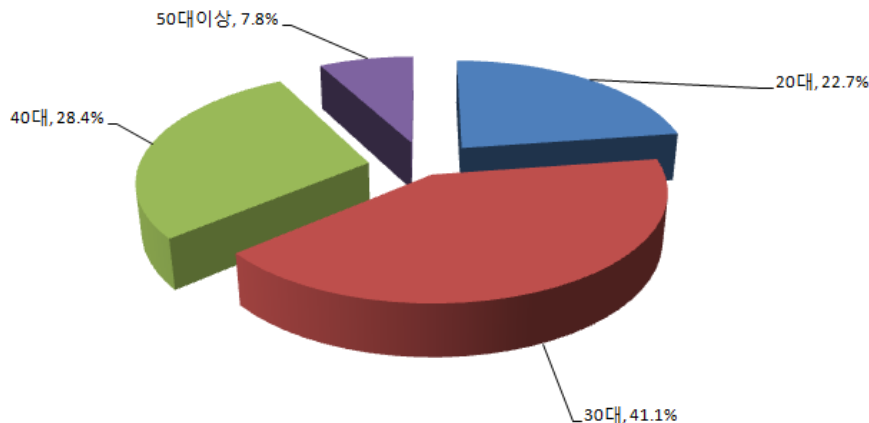
(3) 연령

① 국내외 및 연령별 인력 현황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구조는 30대(41.4%)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28.4%), 20대(22.7%), 50대 이상(7.6%)인 항아리 형태임.⁸⁾ 외국계는 국내계에 비하여 20대와 30대 비중은 높고, 40대와 50대 이상의 비중은 낮아 국내계보다 장년층의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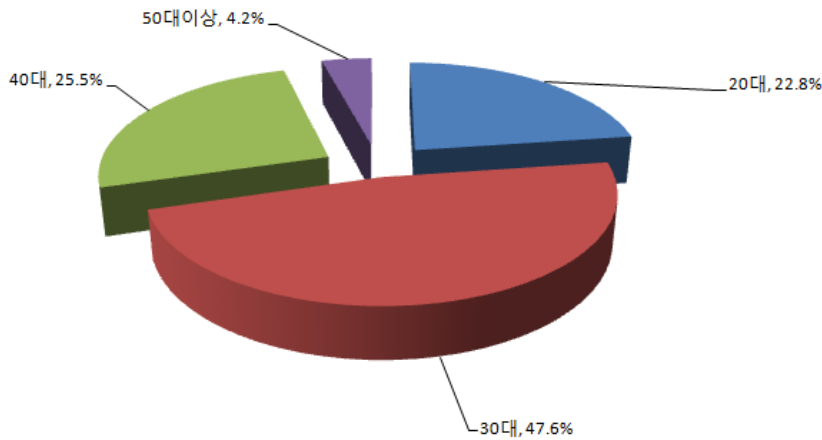
- 금융권 종사자의 연령층 분포는 30대: 41.4%, 40대: 28.3%, 20대: 22.7%, 50대 이상: 7.6%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나타냄.
- － 외국계의 경우 20대(22.8%)와 30대(47.6%)의 비중이 국내계(각각 22.7%, 41.1%)보다 높게 조사됨.

국내계의 연령별 고용 분포



8) 통계청(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산업에서 연령별 고용 분포는 20대 이하 16.4%, 30대 24.5%, 40대 27.5%, 50대 이상 31.6%로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외국계의 연령별 고용 분포



- 근무기간별 인력비중이 10년 이상(46.6%)이 가장 높고, 이어 5년 미만(37.8%), 5~10년(15.6%) 순인 표주박형*임을 고려할 때, 30대 초반보다는 후반의 인력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금융권 신규채용이 감소되었던 상황을 반영

(나-(4)-㉠-①: 『업종·국내외별 총근무기간 비중』 참조)

- 업종별로 40대 이상의 고용비중을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이 각각 43.1%, 35.0%로 가장 높고, 이어 신탁(34.9%), 자산운용(32.2%) 등이 비슷한 수준임.

- 은행과 비교할 때, 증권/선물 및 보험의 퇴직연령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자산운용은 신생업종이므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국내계 보험의 40대 이상 고용비중이 30.0%인 반면, 외국계 보험은 22.9%로 고연령층의 비중 차가 크게 조사됨.

<표 II-28> 업종·국내외별 연령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20대	22.7	22.7	22.8	20.8	21.0	8.1	22.6	21.7	27.4	21.4	21.4	20.3
30대	41.4	41.1	47.6	36.1	36.3	19.7	48.5	48.3	49.7	43.6	43.2	57.3
40대	28.3	28.4	25.5	32.5	32.0	68.5	25.7	27.0	18.4	28.4	28.7	19.8
50대 이상	7.6	7.8	4.2	10.6	10.7	3.8	3.2	3.0	4.5	6.6	6.7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20대	19.8	21.3	14.3	31.1	31.1	-	33.2	34.3	13.3	28.5	28.5	-
30대	48.0	47.1	51.6	40.4	40.4	-	47.4	46.4	64.8	36.6	36.6	-
40대	26.7	26.1	28.8	18.6	18.6	-	16.9	16.8	20.0	21.8	21.8	-
50대 이상	5.5	5.6	5.3	9.9	9.9	-	2.5	2.5	1.9	13.1	13.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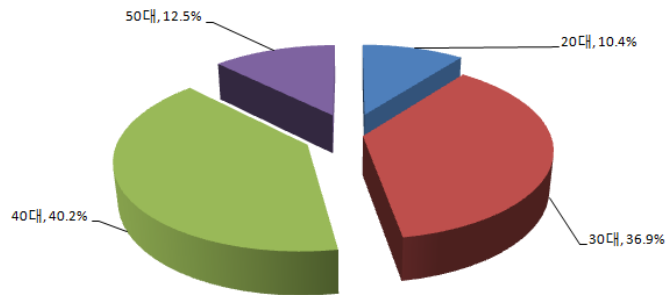
② 성별에 따른 연령별 인력 현황

남성의 경우 40대 이상 비중이 절반 정도(52.7%)였으나, 여성은 동 비중이 35.9%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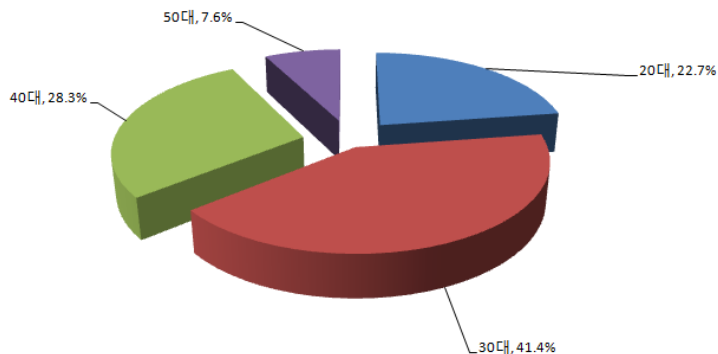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은행의 경우 40대 이상 비중이 남녀 모두 타업권에 비해 높게(각각 64.0%, 16.5%) 나타남.

- 금융권 종사자의 성별 연령 비중을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 이상 비중이 52.7%에 달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동 비중이 35.9%에 불과함.

남성의 연령별 인력 비중



여성의 연령별 인력 비중



(4) 근무기간(총/현 직무)

① 총 근무기간별 인력 현황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무기간별 인력구조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46.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년 미만(37.7%), 5~10년(15.6%) 순으로, 허리가 잘록한 표주박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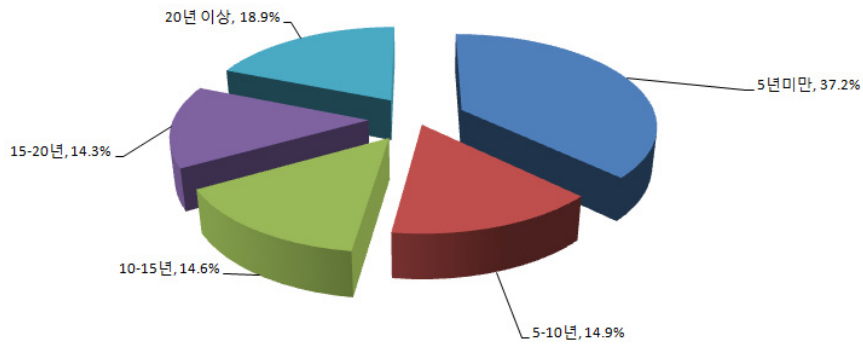
- 5~10년 경력자 비중이 낮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신규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함.

10년 이상을 장기 근속한 인력의 비중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24.4%)보다는 남성(47.8%)이, 직무별로는 법규준수(54.1%)와 마케팅(53.6%) 부문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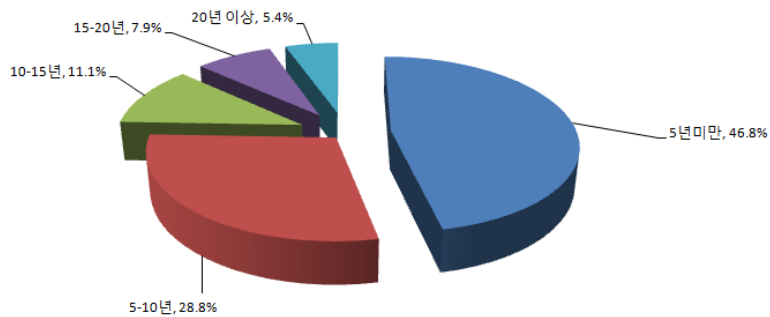
① 국내외 구분에 따른 총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금융기관 전체 종사자의 근무기간별 비중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46.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년 미만(37.7%), 5~10년(15.6%) 순으로, 허리가 잘록한 표주박 형태의 인력구조를 보임.
 - 표주박형 인력구조의 허리부분인 5~10년 경력자의 비중이 낮게 조사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규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계(47.8%)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외국계(24.4%)보다 23.4%p 이상 높게 차이가 나타남.
 - 이는 국내계가 외국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임을 반영함.

총 근무기간별 국내계 인력 비중



총 근무기간별 외국계 인력 비중



- 업종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중을 보면, 은행(54.8%)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53.9%), 신탁(37.8%), 증권/선물(34.0%), 자산운용(29.6%), 여신전문(21.5%), 상호저축(20.8%) 순으로 나타남.
- － 5년 미만 근무자 비중은 외국계 은행(49.2%)이,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은 국내계 은행(55.0%)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1> 업종·국내외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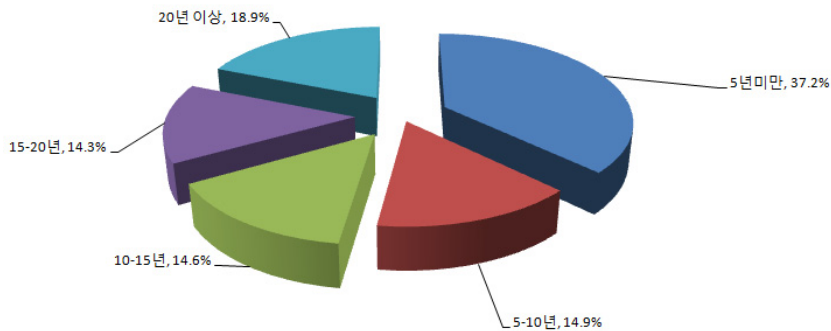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5년 미만	37.7	37.2	46.8	33.5	33.4	49.2	29.3	26.1	45.9	49.9	49.6	59.3
5~10년	15.6	14.9	28.8	11.8	11.6	28.1	16.8	14.6	28.7	16.1	15.8	25.7
10~15년	14.4	14.6	11.1	8.9	8.9	7.3	23.7	26.2	10.3	16.0	16.1	11.5
15~20년	14.0	14.3	7.9	15.9	16.0	5.7	19.8	21.8	9.0	6.7	6.8	2.7
20년 이상	18.2	18.9	5.4	30.0	30.1	9.7	10.4	11.2	6.2	11.3	11.6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5년 미만	48.1	51.5	35.0	53.9	53.9	-	52.9	53.1	47.8	38.7	38.7	-
5~10년	22.3	19.8	32.0	25.2	25.2	-	25.5	25.2	32.1	23.5	23.5	-
10~15년	16.3	15.7	18.5	10.2	10.2	-	14.3	14.2	16.7	15.9	15.9	-
15~20년	8.4	7.9	10.0	5.1	5.1	-	6.4	6.6	2.9	12.8	12.8	-
20년 이상	4.9	5.0	4.5	5.5	5.5	-	0.8	0.8	0.5	9.1	9.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성별에 따른 총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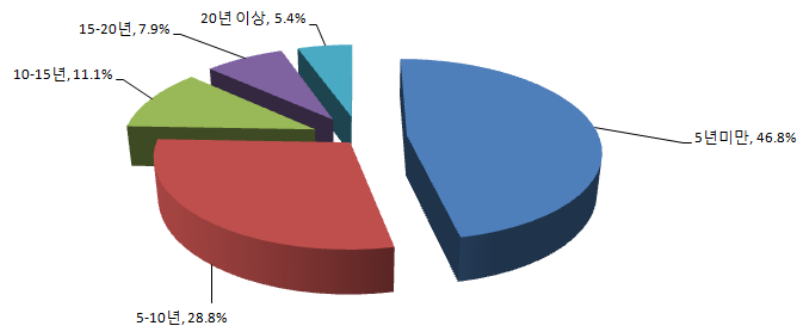
○ 금융기관 직원의 근무기간 비중을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장기근속자 비중이 훨씬 높게 조사됨.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은 남성이 47.8%, 여성이 24.4%로 조사됐으며, 5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여성이 46.8%, 남성이 37.2%로 조사됨.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근속자는 여성(28.8%) 비중이 남성(14.9%)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 근무기간별 남성 인력 비중



총 근무기간별 여성 인력 비중



- 업종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은 남성의 경우 은행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저축이 20.8%로 가장 낮게 조사됨.
- 여성의 경우 보험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신전문의 장기근속 비중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모든 업종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은 남성이, 5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여성이 높게 나타남.
- 5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남성, 여성 모두 상호저축(49.8%, 61.9%)이 가장 높게 조사됨.

③ 직무에 따른 총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직무별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비중을 보면, 법규준수(54.1%)가 가장 높고 마케팅(53.6%), 경영지원(48.5%), 영업(46.5%), 자금조달(37.6%), 보험(36.6%), 투자은행(34.3%), 자산관리(30.8%), 위험관리(28.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자산관리와 연금 직무 부문의 장기 근속자 비중이 낮은 것은 동 직무의 비중이 높은 증권/선물 및 자산운용의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투자직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 동 직무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② 현 직무 근무기간별 인력 현황

금융인력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인력의 비중을 보면, 국내계(20.3%)보다는 외국계(39.7%)가, 업종별로는 자산운용(47.9%), 신탁(37.9%)이 높게 나타남.

- 국내계보다는 외국계가, 업종별로는 증권/선물이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함.

① 국내외 구분에 따른 현 직무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금융업 전체에서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비중은 21.5%에 불과함.

- 3년 이상 근무자 비중은 외국계(39.7%)가 국내계(20.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외국계가 국내계보다 직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함.

○ 업종별로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47.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신탁(37.9%), 상호저축(35.9%), 증권/선물(32.3%), 보험(23.9%), 여신전문(21.6%) 순으로 조사됨.

- 신규 업종으로 최근 신규 채용인력이 많은 자산운용에서 현 직무 장기 근무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동 업종의 직무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다는 것 외에도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업계의 풍토가 반영된 것임.
- 국내계 은행의 경우,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순환근무제가 일반적이기에 현 직무 장기근속자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국내외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외국계의 현 직무 장기 근속자 비중이 국내계보다 높게 조사됨.

<표 II-34> 업종·국내외별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3년 미만	78.5	79.7	60.3	87.8	87.9	85.0	76.1	79.7	57.0	67.7	68.3	43.4
3년 이상	21.5	20.3	39.7	12.2	12.1	15.0	23.9	20.3	43.0	32.3	31.7	5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3년 미만	52.1	57.1	32.5	64.1	64.1	-	78.4	78.9	72.2	62.1	62.1	-
3년 이상	47.9	42.9	67.5	35.9	35.9	-	21.6	21.1	27.8	37.9	37.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직무 및 성별에 따른 현 직무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남성이 여성보다 현 직무에 장기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금융업 전체적으로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을 보면, 남성이 23.0%, 여성이 19.6%로 나타남.

·직무별로는 마케팅,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이외의 모든 직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다소 높음.

○ 직무에 따른 성별 현직 근무기간을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은 준법감시(40.0%), 보험(37.7%), 자산운용(37.0%), 경영지원(28.5%), 자금조달(26.3%), 투자은행(24.8%), 위험관리(24.0%), 영업(17.9%), 마케팅(17.0%), 연금(15.9%)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여성의 경우 현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은 자산운용(39.3%), 보험(35.1%), 자금조달(32.8%), 준법감시(28.2%), 경영지원(24.6%), 투자은행(22.4%), 마케팅(19.1%), 위험관리(16.2%), 영업(15.7%), 연금(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여성이 연금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비중은 자산운용(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법감시 직무는 상호저축(64.7%)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35> 직무·성별 현 직무 3년 이상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전체		21.5	12.2	23.9	32.3	47.9	35.9	21.6	37.9
	남	23.0	13.4	23.5	33.4	48.9	38.1	26.1	39.8
	여	19.6	10.6	24.3	30.5	45.7	31.5	16.5	35.4
경영지원		26.9	18.2	27.7	33.6	46.1	38.9	27.2	39.9
	남	28.5	20.7	27.3	34.9	46.0	40.7	30.4	41.0
	여	24.6	13.9	28.0	31.4	46.1	31.7	21.2	37.9
마케팅		18.1	19.1	16.8	25.9	41.2	34.9	11.9	38.2
	남	17.0	18.7	14.1	26.8	38.4	31.1	14.8	43.9
	여	19.1	19.9	18.8	24.9	46.1	45.0	9.1	28.6
보험		36.8	16.7	36.9	36.1	-	-	-	32.4
	남	37.7	-	37.5	44.0	-	-	-	28.6
	여	35.1	33.3	35.8	8.3	-	-	-	34.8
연금		12.9	12.7	28.6	5.8	66.7	-	-	-
	남	15.9	17.4	32.3	7.2	50.0	-	-	-
	여	6.1	1.8	18.9	2.7	100.0	-	-	-
영업		16.8	9.0	20.9	32.6	64.3	32.9	21.4	36.5
	남	17.9	8.9	16.9	34.2	69.0	35.3	26.1	39.0
	여	15.7	9.1	23.5	30.0	47.3	29.5	17.2	34.4
위험관리		21.0	14.6	41.2	29.4	30.5	16.8	16.0	40.0
	남	24.0	16.0	40.3	31.4	32.6	36.5	20.3	45.1
	여	16.2	10.2	43.1	23.9	25.4	3.8	12.8	21.7
자금조달		29.2	30.1	-	10.0	12.5	62.7	40.0	25.9
	남	26.3	32.0	-	12.1	-	67.7	37.6	22.2
	여	32.8	26.4	-	5.7	16.7	61.0	46.7	28.9
자산운용		37.7	26.4	21.2	39.9	49.5	31.7	20.0	25.9
	남	37.0	26.9	22.8	36.4	49.7	34.8	25.0	21.1
	여	39.3	24.9	19.3	47.0	48.7	15.4	0.0	37.5
준법감시		35.8	22.8	28.6	40.1	53.8	42.7	37.0	43.5
	남	40.0	25.5	33.5	43.9	61.3	39.0	41.7	45.0
	여	28.2	17.7	24.7	31.0	36.1	64.7	28.1	40.0
투자은행		24.4	18.6	20.0	26.7	20.2	51.0	47.0	19.2
	남	24.8	17.8	15.8	27.6	23.3	57.0	48.3	23.1
	여	22.4	23.3	25.9	21.7	-	8.3	40.0	15.4

3) 금융인력 교육

(1) 학 력

① 업종별 학력 현황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을 보면, 대졸(58.6%)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2.1%), 전문대졸(11.9%), 대학원졸(7.4%) 순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을 보면, 국내외별로는 국내계(65.3%)보다는 외국계(77.7%)가, 업종별로는 자산운용(92.7%)과 증권/선물(80.7%)이, 성별로는 여성(51.8%)보다는 남성(77.2%)이 높게 조사됨.

① 업종 및 국내외 구분에 따른 학력별 비중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58.6%)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2.1%), 전문대졸(11.9%), 대학원졸(7.4%) 순으로 조사됨.

<표 II-36> 업종·국내외별 학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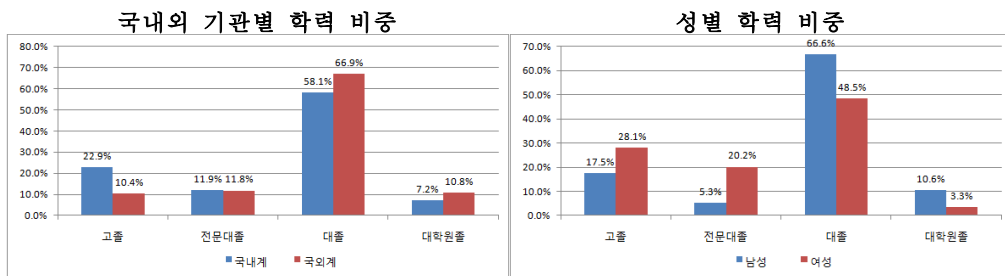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고졸	22.1	22.9	10.4	24.6	25.1	2.5	29.3	32.0	15.2	9.5	9.7	0.0
전문대졸	11.9	11.9	11.8	8.1	8.2	4.3	14.5	14.3	15.9	9.8	10.0	0.9
대졸	58.6	58.1	66.9	60.1	59.7	77.9	51.2	49.1	62.6	69.3	69.2	73.5
대학원졸	7.4	7.2	10.8	7.3	7.1	15.3	4.9	4.7	6.4	11.4	11.0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고졸	3.3	3.4	2.7	16.1	16.1	-	20.2	21.0	3.1	26.3	26.3	-
전문대졸	4.1	4.7	1.7	18.6	18.6	-	22.4	22.7	15.4	30.5	30.5	-
대졸	65.2	64.5	67.6	61.9	61.9	-	51.4	50.3	73.8	41.7	41.7	-
대학원졸	27.5	27.3	28.0	3.3	3.3	-	6.0	5.9	7.7	1.5	1.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외국계의 대졸(66.9%) 및 대학원졸(10.8%) 비중이 국내계(대졸 58.1%, 대학원졸 7.2%) 보다 높게 나타남.
- 외국계 금융기관의 고학력자 선호현상 반영함.

○ 업종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이 92.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증권/선물(80.7%), 은행(67.4%), 상호저축(65.2%)의 순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은 동 업종의 업무 난이도가 높아 고학력자가 선호된다는 것 외에도, 직원의 평균연령이 낮아 과거보다는 고학력자가 많아진 최근 사회적 현상을 타 업종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② 성별에 따른 학력별 비중

○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즉, 남성의 학력 비중은 대졸 66.6%, 고졸 17.5%, 대학원졸 10.6%, 전문대졸 5.3%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은 대졸 48.5%, 고졸 28.1%, 전문대졸 20.2%, 대학원졸 3.3%로 구성됨.

<표 II-37> 업종·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고졸	22.1	17.5	28.1	24.6	23.9	25.5	29.3	17.1	40.6	9.5	6.2	15.3
전문대졸	11.9	5.3	20.2	8.1	2.4	15.2	14.5	8.3	20.3	9.8	1.9	23.8
대졸	58.6	66.6	48.5	60.1	63.0	56.5	51.2	68.3	35.4	69.3	76.5	56.6
대학원졸	7.4	10.6	3.3	7.3	10.7	2.8	4.9	6.3	3.7	11.4	15.4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고졸	3.3	2.4	5.2	16.1	13.7	20.7	20.2	16.7	24.1	26.3	20.1	34.7
전문대졸	4.1	1.2	10.7	18.6	12.3	30.5	22.4	11.0	35.3	30.5	28.9	32.6
대졸	65.2	63.3	69.7	61.9	69.4	48.0	51.4	64.0	37.2	41.7	48.8	32.1
대학원졸	27.5	33.1	14.4	3.3	4.7	0.8	6.0	8.3	3.4	1.5	2.2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종별로는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자산운용(96.4%), 증권/선물(91.9%), 보험(74.6%), 상호저축(74.1%), 은행(73.7%), 여신전문(72.3%), 신협(51.0%)의 순으로, 여성은 자산운용(84.1%), 증권/선물(60.9%), 은행(59.3%), 상호저축(48.8%), 여신전문(40.6%), 보험(39.1%), 신협(32.7%)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학력자 비중이 다른 업종의 남성 고학력자 비중에 근접하여, 동 업종의 고급 여성인력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함.

② 직무별 학력 현황

직무별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투자은행 직무(96.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자산관리(92.7%), 연금(89.4%), 법규준수(81.9%) 순으로 조사됨.

- 직무별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투자은행 직무(96.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자산관리(92.7%), 연금(89.4%), 법규준수(81.9%) 순으로 조사됨.
 - － 투자은행 직무의 고학력자 비중(대졸 68.9%, 대학원졸 27.2%)이 타 직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M&A, IPO 등 투자은행 직무의 난이도가 타 직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가 선호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남녀 모두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투자은행, 자산운용, 연금 순으로 높게 조사됨.

<표 II-38> 직무·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계
전체		22.1	11.9	58.6	7.4	100.0
	남	17.5	5.3	66.6	10.6	100.0
	여	28.1	20.2	48.5	3.3	100.0
경영지원		18.5	12.0	60.4	9.1	100.0
	남	14.7	6.3	67.1	11.8	100.0
	여	24.1	20.4	50.4	5.0	100.0
마케팅		31.0	13.6	48.8	6.5	100.0
	남	22.1	5.8	62.4	9.6	100.0
	여	39.6	21.1	35.7	3.6	100.0
보험		12.6	19.0	63.9	4.5	100.0
	남	7.5	17.1	70.8	4.6	100.0
	여	22.8	22.8	50.0	4.4	100.0
연금		4.5	6.1	77.4	12.0	100.0
	남	2.8	0.6	82.2	14.3	100.0
	여	8.2	18.3	66.6	6.9	100.0
영업		25.4	11.9	58.3	4.4	100.0
	남	22.1	4.4	66.4	7.2	100.0
	여	29.1	20.1	49.4	1.5	100.0
위험관리		13.4	11.9	54.9	19.7	100.0
	남	11.5	5.6	60.8	22.1	100.0
	여	16.8	22.6	45.0	15.7	100.0
자금조달		17.4	17.6	56.5	8.5	100.0
	남	10.1	8.6	68.5	12.9	100.0
	여	26.2	28.2	42.4	3.3	100.0
자산운용		3.4	3.9	71.0	21.7	100.0
	남	1.5	0.7	71.9	25.9	100.0
	여	7.7	11.3	68.9	12.1	100.0
준법감시		9.2	8.8	67.2	14.7	100.0
	남	7.8	6.1	69.4	16.7	100.0
	여	11.9	13.9	63.2	11.0	100.0
투자은행		1.6	2.3	68.9	27.2	100.0
	남	1.0	0.5	68.3	30.1	100.0
	여	4.7	11.5	72.0	11.8	100.0

(2) 전공(대학/대학원)

① 업종별 전공 현황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30.4%, 경제 12.6%, 전산 5.7%, 법학 4.9%, 기타 46.4%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신탁 및 보험의 기타 전공자 비중(각각 49.4%, 52.2%)이 자산 운용, 증권/선물(각각 34.2%, 3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신탁 및 보험사가 직원채용에 있어 공학, 자연계 등 다양한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2.7%, 기타 35.5%, MBA 1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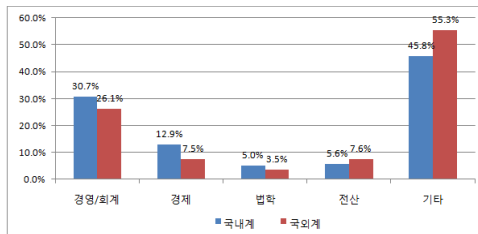
- 국내계의 경우 MBA의 비중이 15.3%에 그친 반면, 외국계의 경우 동 비중이 3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① 업종 및 국내외별 대출자의 전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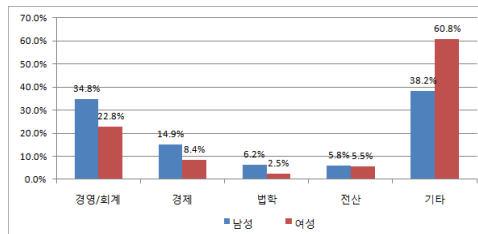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출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30.4%, 경제 12.6%, 전산 5.7%, 법학 4.9%, 기타 46.4%로 나타남.

- 외국계와 국내계의 대출자 전공 비중에는 별 차이가 없음.

국내외 기관별 대출자 전공 비중



성별 대출자 전공 비중



- 상호저축과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대출자 전공비중은 기타 전공을 제외하고 경영·회계, 경제, 전산, 법학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차

가 크지 않음.

- 상호저축의 대졸자 전공비중은 경영·회계 28.0%, 경제 12.0%, 법학 9.4%, 전산 7.1%로 나타남.
- 다만, 보험과 신탁의 경우 기타 전공자 비중(각각 52.2%, 49.4%)이 높게 나타난 반면,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은 기타 전공자 비중(각각 38.6%, 34.2%)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이는 보험 및 신탁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학, 자연계 등 다양한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자산운용의 경우 상경계열(경영·회계, 경제)의 비중(57.9%)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표 II-39> 업종·국내외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경영/회계	30.4	30.7	26.1	30.1	30.2	29.6	26.9	28.0	22.3	33.5	33.4	36.7
경제	12.6	12.9	7.5	11.8	11.9	9.1	10.5	11.4	6.6	16.8	17.0	9.0
법학	4.9	5.0	3.5	4.8	4.9	1.6	5.2	5.4	4.6	3.6	3.6	2.4
전산	5.7	5.6	7.6	5.0	5.1	3.4	5.3	4.2	9.8	7.5	7.5	6.6
기타	46.4	45.8	55.3	48.3	48.0	56.3	52.2	51.1	56.8	38.6	38.4	4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경영/회계	42.3	42.0	43.6	28.0	28.0	-	28.3	29.1	17.4	36.7	36.7	-
경제	15.6	16.4	12.5	12.0	12.0	-	12.7	13.3	4.2	5.7	5.7	-
법학	3.9	4.0	3.6	9.4	9.4	-	7.7	8.1	1.4	3.3	3.3	-
전산	3.9	4.0	3.6	7.1	7.1	-	6.7	6.9	4.2	4.9	4.9	-
기타	34.2	33.5	36.8	43.4	43.4	-	44.6	42.5	72.9	49.4	49.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상경계열(경영·회계, 경제) 비중(49.7%)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동 비중은 31.2%에 불과하고 기타 전공자 비중이 60.8%로 높게 조사됨.

○ 모든 업종에서 여성 기타 전공자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조사됨.

<표 II-40> 업종·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영/회계	30.4	34.8	22.8	30.1	36.7	20.9	26.9	28.5	24.0	33.5	36.4	26.7
경제	12.6	14.9	8.4	11.8	15.2	7.0	10.5	11.7	8.3	16.8	18.5	12.8
법학	4.9	6.2	2.5	4.8	6.6	2.2	5.2	6.4	3.1	3.6	4.4	1.6
전산	5.7	5.8	5.5	5.0	5.0	5.1	5.3	5.0	5.8	7.5	7.9	6.4
기타	46.4	38.2	60.8	48.3	36.6	64.8	52.2	48.5	58.8	38.6	32.8	5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영/회계	42.3	44.6	37.6	28.0	31.3	19.0	28.3	32.8	19.6	36.7	42.3	25.2
경제	15.6	18.5	9.5	12.0	13.1	9.1	12.7	14.9	8.4	5.7	5.8	5.4
법학	3.9	4.1	3.7	9.4	10.1	7.5	7.7	9.8	3.5	3.3	3.5	2.9
전산	3.9	4.6	2.5	7.1	7.4	6.4	6.7	6.5	7.1	4.9	4.9	5.0
기타	34.2	28.2	46.7	43.4	38.0	58.0	44.6	36.0	61.4	49.4	43.4	6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업종 및 국내외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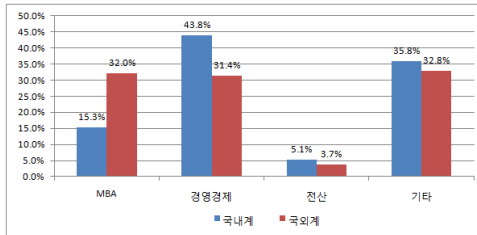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42.7%, 기타 35.5%, MBA 16.7%, 전산 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계의 경우 MBA의 비중이 15.3%에 그친 반면, 외국계의 경우 동 비중이 3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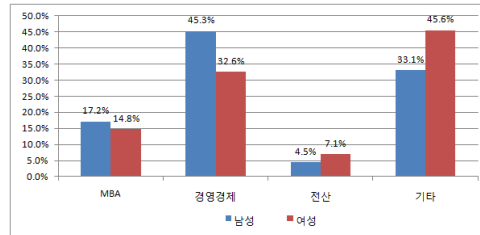
·국내계보다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MBA 선호 경향이 높음을 의미함.

- 업종별로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비중을 보면, 상호저축과 은행에서는 경영·경제의 비중(각각 54.2%, 48.0%)이 타업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국내외 기관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표 II-41> 업종·국내외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MBA	16.7	15.3	32.0	15.0	13.9	37.3	11.4	12.3	7.7	20.6	18.7	48.3
경영/경제	42.7	43.8	31.4	48.0	48.6	34.5	30.6	31.5	27.0	42.0	42.3	37.9
전산	5.0	5.1	3.7	3.6	3.7	1.1	7.6	7.3	8.5	4.6	4.9	0.0
기타	35.5	35.8	32.8	33.5	33.8	27.1	50.5	48.9	56.7	32.8	34.1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MBA	25.3	17.9	52.6	10.1	10.1	-	17.7	14.2	73.3	19.9	19.9	-
경영/경제	43.3	45.6	34.5	54.2	54.2	-	36.4	38.3	6.7	44.9	44.9	-
전산	2.1	2.2	1.7	2.9	2.9	-	15.9	16.9	0.0	1.5	1.5	-
기타	29.3	34.2	11.2	32.9	32.9	-	30.0	30.6	20.0	33.8	33.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II-42> 업종·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MBA	16.7	17.2	14.8	15.0	15.8	11.2	11.4	11.0	12.0	20.6	20.7	19.6
경영/경제	42.7	45.3	32.6	48.0	50.2	37.4	30.6	33.1	26.6	42.0	42.6	37.8
전산	5.0	4.5	7.1	3.6	3.3	4.9	7.6	6.7	9.0	4.6	4.7	4.0
기타	35.5	33.1	45.6	33.5	30.8	46.5	50.5	49.2	52.5	32.8	31.9	3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MBA	25.3	24.8	27.9	10.1	9.1	21.7	17.7	15.6	23.8	19.9	20.4	17.4
경영/경제	43.3	45.5	31.1	54.2	55.1	43.5	36.4	42.4	19.2	44.9	49.6	21.7
전산	2.1	2.1	2.3	2.9	2.8	4.3	15.9	13.2	23.9	1.5	1.8	0.0
기타	29.3	27.6	38.7	32.9	33.1	30.4	30.0	28.8	33.2	33.8	28.3	6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증권/선물과 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산 전공 인원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또한 상호저축과 여신전문에서는 MBA전공의 여성비중(각각 21.7%, 23.8%,)이 남성(9.1%, 15.6%)보다 높게 나타남.

② 직무별 전공 현황

직무별로 대학졸업자들의 전공을 보면, 기타 전공자 비중은 마케팅과 보험(각각 48.7%, 57.1%) 부문에서 가장 높게, 투자은행 직무(33.6%) 부문에서 가장 낮게 조사됨.

대학원 전공을 보면, MBA의 경우 자금조달(26.0%) 및 투자은행 직무(36.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① 직무 및 성별 대졸자의 전공 비중

- 직무별 대학 전공을 보면, 기타 전공자 비중의 경우 보험(57.1%)에서 가장 높았고, 마케팅(48.7%), 영업(48.3%), 경영지원(44.1%), 위험관리(42.6%) 순으로 조사됨.

- － 전산전공자의 경우 정보시스템 업무가 포함된 경영지원 직무(10.2%)에 고용된 비중이 높게 조사됨.

- 한편, 모든 직무에 있어 여성의 기타 전공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조사됨.

② 직무 및 성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 비중

- 전산전공의 경우 위험관리(12.4%) 직무의 비중이 다른 직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대졸전공과 동일한 현상임.

- － 한편, MBA의 경우 투자은행(36.4%), 자금조달(26.0%)에서 다른 직무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II-43> 직무·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경영/회계	경제	법학	전산	기타	계
전체		30.4	12.6	4.9	5.7	46.4	100.0
	남	34.8	14.9	38.2	6.2	5.8	100.0
	여	22.8	8.4	60.8	2.5	5.5	100.0
경영지원		29.6	10.6	5.5	10.2	44.1	100.0
	남	32.7	11.8	6.8	11.4	37.2	100.0
	여	23.4	8.1	3.0	7.7	57.9	100.0
마케팅		30.0	12.6	4.0	4.7	48.7	100.0
	남	33.7	14.7	5.1	4.2	42.3	100.0
	여	23.6	9.1	2.3	5.5	59.5	100.0
보험		20.9	10.0	7.3	4.7	57.1	100.0
	남	22.0	11.6	9.3	4.0	53.1	100.0
	여	17.7	5.4	1.8	6.7	68.4	100.0
연금		25.4	16.7	5.1	5.9	47.0	100.0
	남	28.0	17.5	5.6	3.8	45.0	100.0
	여	18.0	14.5	3.6	11.5	52.3	100.0
영업		30.6	13.1	4.5	3.6	48.3	100.0
	남	36.4	16.4	6.0	2.9	38.2	100.0
	여	22.0	8.1	2.3	4.5	63.2	100.0
위험관리		30.6	14.0	4.6	8.2	42.6	100.0
	남	34.6	16.2	5.8	6.8	36.5	100.0
	여	21.4	8.9	1.8	11.5	56.4	100.0
자금조달		33.3	16.9	3.8	3.8	42.3	100.0
	남	38.1	20.4	3.0	4.8	33.6	100.0
	여	24.0	10.1	5.3	1.8	58.8	100.0
자산운용		37.3	19.1	2.2	3.8	37.5	100.0
	남	40.8	21.2	2.5	3.8	31.7	100.0
	여	29.0	14.3	1.5	3.8	51.3	100.0
준법감시		27.3	9.9	20.5	3.5	38.8	100.0
	남	29.5	11.1	25.2	3.3	30.9	100.0
	여	23.1	7.5	11.5	3.8	54.1	100.0
투자은행		42.1	18.0	4.1	2.2	33.6	100.0
	남	44.0	19.2	4.4	2.1	30.3	100.0
	여	32.9	12.0	2.5	3.0	49.5	100.0

<표 II-44> 직무·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MBA	경영/경제	전산	기타	계
전체		16.7	42.7	5.0	35.5	100.0
	남	17.2	45.3	4.5	33.1	100.0
	여	14.8	32.6	7.1	45.6	100.0
경영지원		16.3	41.7	6.6	35.4	100.0
	남	16.4	44.2	6.5	32.9	100.0
	여	16.1	33.0	6.8	44.2	100.0
마케팅		14.4	37.5	9.1	39.0	100.0
	남	14.6	42.9	8.0	34.5	100.0
	여	13.8	23.5	12.1	50.6	100.0
보험		8.5	24.4	8.1	59.0	100.0
	남	10.9	28.6	8.7	51.7	100.0
	여	3.5	15.3	6.9	74.4	100.0
연금		14.0	57.8	1.3	27.0	100.0
	남	13.2	61.0	0.0	25.8	100.0
	여	17.7	42.6	7.4	32.4	100.0
영업		13.5	49.3	2.3	34.9	100.0
	남	13.8	51.0	2.2	33.0	100.0
	여	11.7	40.3	3.2	44.7	100.0
위험관리		12.5	35.4	12.4	39.8	100.0
	남	13.8	37.1	8.5	40.5	100.0
	여	9.2	31.1	21.5	38.1	100.0
자금조달		26.0	49.8	1.2	22.9	100.0
	남	26.7	52.7	1.5	19.1	100.0
	여	22.7	36.4	0.0	40.8	100.0
자산운용		19.3	44.5	2.2	34.0	100.0
	남	18.0	47.4	2.3	32.3	100.0
	여	25.6	30.6	1.8	42.0	100.0
준법감시		16.4	31.9	4.1	47.6	100.0
	남	16.3	33.3	4.6	45.8	100.0
	여	16.6	27.6	2.7	53.0	100.0
투자은행		36.4	34.8	1.3	27.5	100.0
	남	37.7	34.9	1.3	26.1	100.0
	여	19.3	34.6	0.0	46.1	100.0

(3) 영어능력

① 업종별 영어능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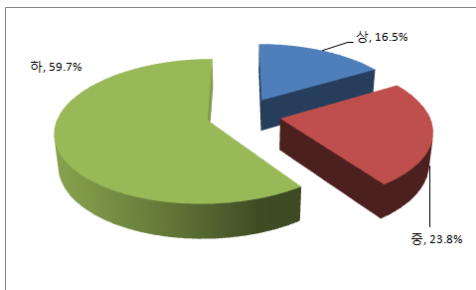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영어구사능력은 하위수준이 58.7%를 차지한 반면, 상위수준은 18.4%에 불과

- 외국계의 경우 상위수준이 37.0%를 차지하여 국내계의 동 비중(16.5%)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 업종별로는 자산운용의 경우 상위수준이 64.7%를 기록하여 증권/선물(32.0%), 여신전문(16.1%), 보험(21.6%), 은행(15.1%), 상호저축(12.8%), 신탁(1.2%)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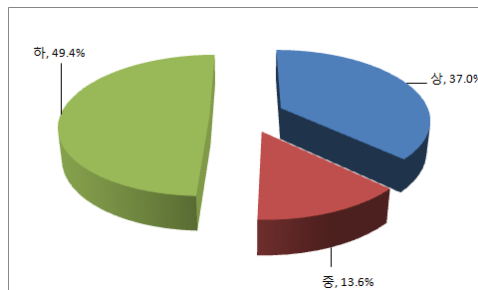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영어구사능력은 하위수준이 58.7%나 차지한 반면, 상위수준은 18.4%에 불과함.⁹⁾

* 상(TOEIC 875 이상), 중(TOEIC 725~875), 하(TOEIC 725 미만)

국내계의 영어능력별 인력 비중



외국계의 영어능력별 인력 비중



9) TOEIC 시험의 경우 단순한 일상생활 용어에 대한 읽기 및 듣기 테스트에 불과하므로 수험대상의 정확한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한계가 있으나, 성적을 보유한 대상인원이 가장 광범위하고 통일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영어구사능력의 척도로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함(2007년 조사부터는 TOEFL과 TEPS 성적도 기준으로 사용됨).

- 외국계의 상위수준은 37.0%를 차지하여 국내계의 동 비중(16.5%)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이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해외본사와의 교류 등으로 영어구사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자산운용의 경우 상위수준이 64.7%를 기록하여 증권/선물(32.0%), 여신전문(16.1%), 보험(21.6%), 은행(15.1%), 상호저축(12.8%), 신탁(1.2%)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 은행의 경우 동 비중이 매우 낮은 이유는 국내계 은행원 대부분(68.3%)의 영어능력이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영어능력 상위수준의 비중(82.2%)이 대부분을 차지함.
 - － 외국계 여신전문의 영어능력 상위수준의 비중은 1.1%로 외국계 타 업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표 II-45> 업종·국내외별 영어능력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영어상	18.4	16.5	37.0	15.1	14.4	82.2	21.6	23.9	18.0	32.0	24.7	96.3
영어중	22.9	23.8	13.6	17.3	17.3	14.3	18.0	21.0	13.3	45.2	50.0	3.7
영어하	58.7	59.7	49.4	67.6	68.3	3.5	60.4	55.2	68.7	22.7	25.3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영어상	64.7	54.1	81.3	12.8	12.8	-	16.1	17.9	1.1	1.2	1.2	-
영어중	16.3	20.2	10.3	29.6	29.6	-	43.2	41.7	55.7	23.2	23.2	-
영어하	18.9	25.7	8.5	57.6	57.6	-	40.7	40.4	43.2	75.7	75.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직무별 영어능력 현황

직무별로 영어능력 상위자 비중을 보면, 투자은행 직무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이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직무별로 영어능력 상위자 비중을 보면, 자금조달 및 투자은행 직무가 각각 33.8%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 직무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자금조달 및 투자은행 직무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라 직무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접촉 필요성이 높는데, 이러한 특성이 해당 인력의 영어능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46> 직무·성별 영어능력 비중

(단위 : %)

		영어 상	영어 중	영어 하	계
전체		18.4	22.9	58.7	100.0
	남	18.0	24.0	58.1	100.0
	여	19.0	21.2	59.8	100.0
경영지원		18.2	23.0	58.7	100.0
	남	15.3	23.9	60.7	100.0
	여	23.6	21.4	55.0	100.0
마케팅		23.0	25.9	51.1	100.0
	남	19.3	26.5	54.2	100.0
	여	29.0	25.0	46.0	100.0
보험		26.5	26.3	47.1	100.0
	남	22.3	24.2	53.5	100.0
	여	33.0	29.6	37.4	100.0
연금		19.5	19.6	61.0	100.0
	남	15.2	24.5	60.4	100.0
	여	31.7	5.7	62.7	100.0
영업		14.5	18.9	66.6	100.0
	남	15.6	20.2	64.2	100.0
	여	13.1	17.1	69.8	100.0
위험관리		25.8	35.2	39.0	100.0
	남	23.2	36.2	40.6	100.0
	여	32.3	32.5	35.2	100.0
자금조달		33.8	24.0	42.1	100.0
	남	30.0	33.5	36.5	100.0
	여	38.0	13.9	48.2	100.0
자산운용		31.2	51.6	17.2	100.0
	남	35.3	44.3	20.4	100.0
	여	24.4	64.0	11.6	100.0
준법감시		25.7	29.2	45.0	100.0
	남	19.5	35.0	45.5	100.0
	여	35.4	20.2	44.3	100.0
투자은행		42.5	31.7	25.7	100.0
	남	40.3	33.5	26.3	100.0
	여	57.0	20.6	22.4	100.0

(4) 자격증

① 업종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현황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94.18%이며, 이중 국제통용자격 소지자 비율은 2.04%에 불과함.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제통용자격증 소지자 비율(3.44%)은 국내계 (1.95%)보다 높게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94.18%이며, 국제통용자격증의 경우 전체 금융업 종사자의 2.04%만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제통용자격 소지자 비율(3.44%)은 국내계(1.95%)보다 높게 조사됨.
- 자격증별로는 국가자격인 변호사,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각각 0.09%, 0.68%이며, 법정자격증 소지자비율은 68.79%에 이르고 있음.
 - 법정자격 소지자비율의 경우 국내계가 72.63%에 이르지만, 외국계는 8.92%에 불과
 - 국제통용자격증을 살펴보면 AICPA는 0.50%, CFA가 0.37%, FRM이 0.69%, 기타 자격은 0.48%의 비율로 나타남.
-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증권/선물의 경우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5.88~77.17%)을 압도함.

- 국내계와 외국계 금융회사를 비교하면 국내계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98.94%에 달하는데 반하여 외국계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19.78%에 불과함.

<표 II-47> 업종·국내외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

(단위 : %)

		계	국가자격			법정 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변호사	손해 사정사	기타		공인	비공인	소계	AICP A	CFA	FRM	기타
전업권		94.18	0.09	0.68	1.06	68.79	13.16	8.36	2.04	0.50	0.37	0.69	0.48
	국내	98.94	0.09	0.61	0.91	72.63	13.88	8.87	1.95	0.44	0.36	0.70	0.45
	외국	19.78	0.09	1.69	3.41	8.92	1.85	0.38	3.44	1.41	0.52	0.56	0.95
은행		117.32	0.06	0.00	0.43	83.16	16.39	15.76	1.53	0.41	0.23	0.71	0.17
	국내	119.79	0.06	0.00	0.31	85.08	16.75	16.10	1.50	0.40	0.23	0.73	0.14
	외국	11.43	0.17	0.00	5.84	0.93	0.93	1.10	2.46	0.85	0.08	0.08	1.44
보험		77.17	0.07	2.76	1.94	51.14	15.74	4.26	1.25	0.25	0.23	0.36	0.41
	국내	88.48	0.07	2.77	1.69	59.40	18.45	5.01	1.09	0.15	0.25	0.38	0.30
	외국	17.07	0.05	2.72	3.28	7.29	1.35	0.28	2.10	0.81	0.11	0.21	0.98
증권/선물		116.28	0.16	0.00	1.27	102.46	8.19	0.38	3.83	1.06	0.75	1.20	0.81
	국내	118.05	0.16	0.00	1.20	104.28	8.26	0.39	3.75	0.98	0.76	1.19	0.82
	외국	52.51	0.00	0.00	3.65	36.99	5.48	0.00	6.39	3.65	0.46	1.83	0.46
자산운용		67.32	0.30	0.00	1.94	46.75	5.73	0.70	11.91	3.02	4.45	3.69	0.75
	국내	71.41	0.25	0.00	1.93	53.01	5.53	0.75	9.94	2.05	3.73	3.42	0.75
	외국	51.50	0.50	0.00	2.00	22.50	6.50	0.50	19.50	6.75	7.25	4.75	0.75
저축은행		39.02	0.30	0.67	0.96	17.48	6.41	9.06	4.14	0.22	0.01	0.12	3.79
	국내	39.02	0.30	0.67	0.96	17.48	6.41	9.06	4.14	0.22	0.01	0.12	3.79
	외국	-	-	-	-	-	-	-	-	-	-	-	-
여신전문		5.88	0.05	0.01	0.50	1.28	2.97	0.17	0.90	0.24	0.04	0.26	0.35
	국내	6.17	0.05	0.01	0.54	1.38	3.16	0.18	0.84	0.16	0.04	0.29	0.35
	외국	2.24	0.00	0.00	0.00	0.00	0.64	0.00	1.60	1.28	0.00	0.00	0.32
신탁		24.98	0.01	0.00	2.58	11.91	8.66	1.65	0.15	0.00	0.13	0.01	0.01
	국내	24.98	0.01	0.00	2.58	11.91	8.66	1.65	0.15	0.00	0.13	0.01	0.01
	외국	-	-	-	-	-	-	-	-	-	-	-	-

주 : 복수자격증 소지자(예: CPA 소지자가 AICPA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이들의 복수계상을 제어 못함. 이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계'의 비율도 동일한 데이터로 한계가 있음.

②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현황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연금, 영업, 자산운용 직무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국제통용자격증의 소지 비율은 위험관리, 자산운용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직무별로 보면, 연금(120.25%), 영업(113.45%), 자산관리(99.76%), 마케팅(84.03%) 순으로 높게 조사됨.
- － 또한 국제통용자격증의 경우 위험관리(10.27%), 자산관리(11.09%), 투자는행(7.69%) 직무가 타 직무군에 비해 소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투자는행 직무 종사자의 전문성이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48> 직무별 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비중

(단위 : %)

	국가자격			법정 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계
	번호사	손해 사정사	기타		공인	비공인	소계	AICPA	CFA	FRM	기타		
전체	0.09	0.68	1.06	68.79	13.16	8.36	2.04	0.50	0.37	0.69	0.48	94.18	
경영지원	0.22	0.25	1.10	53.34	10.61	5.62	2.06	0.70	0.39	0.51	0.46	73.20	
마케팅	0.07	0.39	1.36	61.74	15.02	4.52	0.92	0.18	0.15	0.34	0.26	84.03	
보험	0.00	18.75	4.49	17.12	4.07	9.70	1.14	0.05	0.02	0.10	0.96	55.27	
연금	0.00	0.00	4.20	90.50	18.02	1.87	5.67	0.15	1.25	3.45	0.81	120.25	
영업	0.01	0.10	0.37	84.65	15.48	11.65	1.19	0.28	0.10	0.39	0.43	113.45	
위험관리	0.11	0.12	2.96	33.55	8.79	4.05	10.27	1.07	1.04	6.94	1.21	59.85	
자금조달	0.11	0.00	5.14	35.53	5.05	2.91	3.23	1.20	0.79	1.24	0.00	51.97	
자산운용	0.06	0.00	1.76	74.09	9.07	3.70	11.09	2.10	3.63	4.28	1.07	99.76	
준법감시	1.48	0.41	1.55	46.64	12.46	6.26	4.50	1.21	0.37	1.72	1.20	73.30	
투자는행	0.04	0.00	6.54	49.19	6.06	2.34	7.69	2.26	2.64	1.88	0.91	71.84	

(5) 직무연수

① 업종별 직무연수 현황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직원의 교육에 직무연수를 거의 활용하지 않음.

- 이는 업무현장을 떠나서는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소속기관의 역할 보다는 개개인의 자기계발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취업 인력은 물론 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① 업종 및 국내외별 직무연수자 비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3주 이상의 해외연수, 3개월 이상의 외부(국내), 혹은 사내 연수를 받은 비율은 18.5%임.
- 3주 이상의 해외연수를 받은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3개월 이상의 외부(국내) 및 사내연수를 받은 비율은 각각 5.7%와 12.2%로 조사됨.

<표 II-49> 업종·국내외별 직무연수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연수없음	81.5	81.1	87.9	64.3	65.1	28.6	95.2	94.4	99.9	96.2	96.1	99.1
사내연수	12.2	13.0	0.4	24.7	25.2	2.4	2.5	2.9	0.0	1.8	1.8	0.4
외부연수	5.7	5.4	11.2	10.8	9.5	67.4	1.0	1.2	0.0	1.9	2.0	0.0
해외연수	0.6	0.6	0.4	0.2	0.2	1.7	1.3	1.5	0.1	0.1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탁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연수없음	99.0	99.1	98.8	86.8	86.8	-	93.9	93.4	100.0	91.9	91.9	-
사내연수	0.0	0.0	0.0	6.2	6.2	-	1.6	1.8	0.0	6.9	6.9	-
외부연수	0.6	0.7	0.0	6.9	6.9	-	2.4	2.5	0.0	0.9	0.9	-
해외연수	0.4	0.2	1.3	0.0	0.0	-	2.1	2.3	0.0	0.3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외국계 및 국내계 은행의 직무연수 비중은 각각 71.4%와 34.9%로 가장 높으며 여타 국내외 금융업종의 경우 직무연수 이수자 비율이 미미함(0.0~13.2%).

－ 이는 국내외 금융업종의 경우, 업무현장을 떠나서는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소속기관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자기개발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의미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취업 인력은 물론 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II-50> 업종·국내외별 연수 유형별 비중

(단위 : %)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사내연수	66.0	68.6	3.6	69.1	72.3	3.3	51.6	51.7	0.0	46.4	46.4	50.0
외부연수	30.9	28.4	92.8	30.3	27.2	94.3	21.1	21.1	0.0	51.2	51.6	0.0
해외연수	3.0	3.0	3.6	0.6	0.5	2.4	27.3	27.1	100.0	2.4	2.1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사내연수	0.0	0.0	0.0	47.3	47.3	-	26.6	26.6	0.0	85.6	85.6	-
외부연수	59.4	80.0	0.0	52.6	52.6	-	38.5	38.5	0.0	11.1	11.1	-
해외연수	40.6	20.0	100.0	0.1	0.1	-	34.9	34.9	0.0	3.2	3.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0.0	100.0	100.0	-

② 업종 및 국내외별 직무연수 비중

○ 금융기관이 직원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연수별 비중은 사내연수가 가장 높고(66.0%), 이어 외부연수(30.9%), 해외연수(3.0%) 순으로 나타남.

■ 저자 약력

- 이남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상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홍광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정정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이미영
 - 한국관광대학 교수
- 오계택
 - 중앙대학교 교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보고서

·발행연월일	2010년 12월 14일 인쇄 2010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권대봉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매품>

